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향 연구

2020. 1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권과 평화의 대학 -

성공회대학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향 연구

제 출 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향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0.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진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선화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

송기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향 연구

2020. 1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권과 평화의 대학 -

성공회대학교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II.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1.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발전과정	11
1) 거리노숙인 규모와 현황	11
2)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발전과정	13
2.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20
1)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20
2) 지방정부의 거리노숙인 지원 구조	29
3.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요	34
1) 사업의 배경	34
2) 사업의 목표와 내용	35
3) 사업의 추진방향	38
4)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39
5) 사업 수행기관	40

III.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 실적

1. 사업 실적 분석 개요	43
2. 거리노숙인 참여 실적	44
1) 거리노숙인 참여율	44
2) 거리노숙인 사업 참여 지속율	46
3.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50
4. 프로그램 운영 실적	61
1) 프로그램별 출석률과 만족도	61
2) 프로그램 운영 실적	62
5. 소결	66

IV.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

1. 사업 효과 분석 개요	71
2. 사업 참여자 초점집단 인터뷰	72
1) 참여자 초점 집단 인터뷰 개요	72
2)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	73
3.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	90
1) 조사 개요	90
2) 응답자 특성	91
3) 거리노숙인의 일과	94
4) 생활 변화 분석	99
5)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113
4. 소결	118

V.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

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의의	123
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격과 특징	123
2)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과와 의의	124
2.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	127
1)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127
2) 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	131
3. 제언	138

참고문헌	141
------------	-----

부록: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설문지	145
-----------------------------	-----

그림 목차

[그림 II-1]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12
[그림 II-2] 노숙인 지원 정책 변화 과정	13
[그림 II-3]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19
[그림 II-4]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시범사업 비전과 목표	37
[그림 II-5] 거리노숙인 통합지원 자활프로그램 추진 개요	38
[그림 II-6]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기관 사업내용	39
[그림 II-7]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업무절차 예시	39
[그림 III-1]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45
[그림 III-2] 참여 종료 사유(2019년)	47
[그림 III-3] 참여 종료 사유(2020년)	47
[그림 III-4]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주요 사업 실적	50
[그림 III-5] 주민등록 지원 현황	53
[그림 III-6]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지원 현황	54
[그림 III-7]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57
[그림 III-8]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60
[그림 III-9] 프로그램별 출석률과 만족도	61
[그림 IV-1] 행위별 평균 사용시간(평일)	96
[그림 IV-2] 시간대별 주요 활동	98
[그림 IV-3] 평소 돈이 생기면 사용하는 곳	108
[그림 IV-4]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전체)	111
[그림 IV-5]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114
[그림 IV-6] 사업 참여 이후 변화(우선순위)	115

표 목차

<표 I-1> 연구내용과 방법	7
<표 II-1> 연도별 노숙인 등 규모	12
<표 II-2> 노숙인·부랑인 사업 비교(2011년)	17
<표 II-3>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21
<표 II-4> 노숙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서비스	25
<표 II-5> 노숙인복지법 관련 조례 현황	30
<표 II-6> 최근 3년간 노숙인 지원 관련 예산 추이	31
<표 II-7> 노숙인 지원 관련 예산 구성(2020년)	32
<표 II-8>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기본 개요	36
<표 II-9>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기관 현황	40
<표 III-1>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45
<표 III-2> 사업 참여 지속률	47
<표 III-3> 참여 종료 사유(2019년)	47
<표 III-4> 참여 종료 사유(2020년)	47
<표 III-5>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49
<표 III-6> 2019년 주요 사업실적	51
<표 III-7> 2020년 주요 사업실적	51
<표 III-8> 기관별 주민등록 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53
<표 III-9>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 현황	55
<표 III-10>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 결과	55
<표 III-11> 기관별 자활근로 연계 여부	56
<표 III-12> 주거지원 연계 현황(2019)	58
<표 III-13> 주거지원 실적(2020년)	58
<표 III-14> 공공임대주택 연계 여부	59
<표 III-15>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60
<표 III-16> 기관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현황(2019년)	63
<표 III-17> 기관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현황(2020년)	63
<표 III-18>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2019년)	64
<표 III-19>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2020년)	64
<표 III-20> 기관별 일자리 제공 현황(2019년)	65
<표 III-21> 기관별 일자리 제공 현황(2020년)	65
<표 IV-1> FGI 참여자 특성	73

<표 IV-2> FGI 분석 결과	74
<표 IV-3> 설문지의 구성	91
<표 IV-4> 응답자의 특성	93
<표 IV-5> 거리노숙인의 일과 분류	94
<표 IV-6> 행위별 평균 사용시간	96
<표 IV-7> 최근 한달간 생활 모습 차이 검증(참여/비참여)	101
<표 IV-8>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참여/비참여)	102
<표 IV-9> 거리노숙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3
<표 IV-10> 최근 한 달 간 생활 모습 차이 검증(참여종료/참여/비참여)	105
<표 IV-11>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참여종료/참여/비참여)	106
<표 IV-12> 평소 돈이 생기면 사용하는 곳(참여)	108
<표 IV-13> 평소 돈이 생기면 사용하는 곳(비참여)	108
<표 IV-14> 앞으로의 계획 유무(참여/비참여)	109
<표 IV-15> 앞으로의 계획 유무(참여종료/참여/비참여)	109
<표 IV-16> 자립 예상 기간(참여/비참여)	110
<표 IV-17> 자립 예상 기간(참여종료/참여/비참여)	110
<표 IV-18>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전체)	111
<표 IV-19>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참여)	112
<표 IV-20>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비참여)	112
<표 IV-2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한 이유	113
<표 IV-22>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114
<표 IV-23> 사업 참여 이후 변화(다중응답)	114
<표 IV-24> 사업 참여 이후 변화(우선순위)	115
<표 V-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	125
<표 V-2>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	140

|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_연구 배경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거리노숙인 만성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통합지원사업임
 - 거리노숙인에게 일자리와 심리지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전국 6개 도시 10개 기관(현 8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함
 -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 운영을 위탁하고,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소한의 행정 및 운영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역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함
 - 이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사업 수행 기간이 짧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몇 차례 연장이 거듭되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2005년 거리노숙인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임
 - 긴급한 위기상황 등 일시적 지원에 머물렀던 거리노숙인에게 일상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존 노숙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시도로 기대를 모음
- 그러나 사업의 비전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운영 상 여러 어려움이 따랐음

- 이는 짧은 사업 준비기간, 불투명한 지속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여러 정책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임
- 이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사업 수행의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제기됨
 - 즉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_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수행 상의 한계와 어려움을 분명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업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과제로 남은 사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중앙부처 사업으로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 내용과 방법

1_연구 과업의 범위

- 본 연구의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내용적 범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 공간적 범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 6개 도시 10개 기관
 - 시간적 범위: 2019년 7월 - 2020년 6월(1년)

2_연구 내용과 방법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 진단과 개선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업 수행기간 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 요건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정책 환경 분석
 - 실적 평가 및 효과성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갖는 정책적 위상과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리노숙인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함
 - 노숙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주요 논문과 보고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 가이드, 사업 수행기관 보고서 등을 문헌연구에 활용함
- 사업 실적 평가
 - 사업 수행의 내용과 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첫 번째 단계로 거리노숙인 참여율과 지속율,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함

-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2019년 12월 말, 2020년 6월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음

○ 효과성 평가

- 효과성 평가는 본 연구의 핵심 과업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한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생활패턴과 자립의지,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중간관리자·전담사례관리자 심층인터뷰와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사업 참여 노숙인 FGI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개선방향 도출

- 마지막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함.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 FGI, 전문가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음
-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함. 특히 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분명히 하여 사업의 안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실무적 문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수행한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반복하여 다루지 않았음

<표 1-1> 연구내용과 방법

구분	내용	연구방법
정책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정책의 변화와 현황 • 거리노숙인의 규모와 현황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내용 분석 	문헌연구
사업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분석 	정량적·정성적 평가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욕구 파악 및 만족도 조사 • 참여자의 인식 및 태도 변화 분석 • 참여자 비참여자 생활 패턴 차이 비교 	사전사후조사 사업 참여자 FGI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과정 진단 • 사업 운영상의 개선 방향 • 제도적 지원·보완책 모색 • 기관의 역할과 사업의 지속 여건 확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FGI 전문가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추진 방향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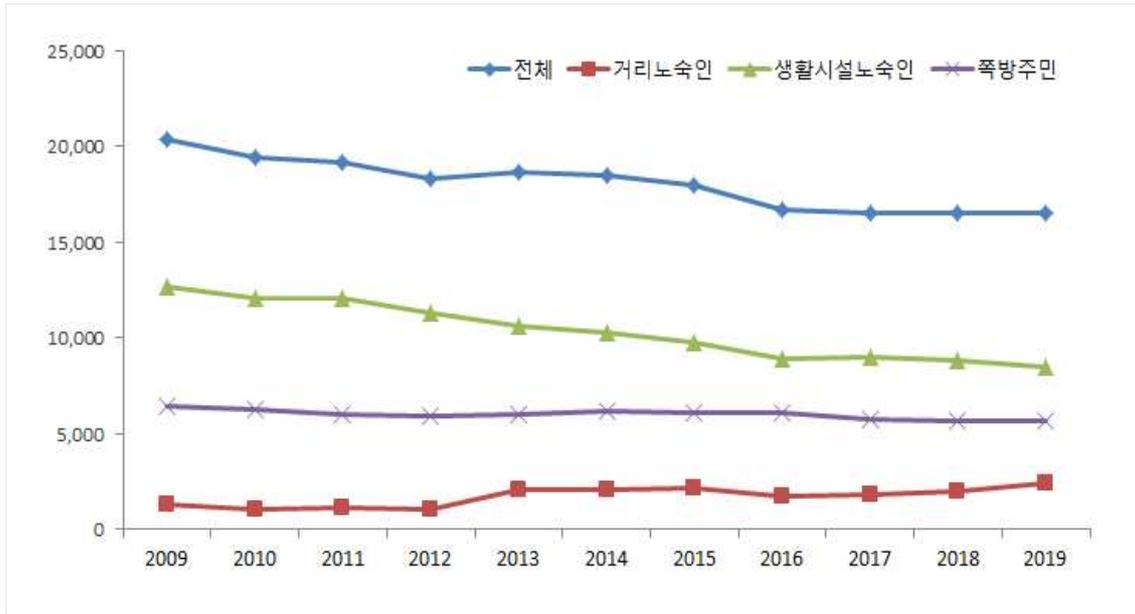
II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1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발전과정

1_거리노숙인 규모와 현황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거리노숙인의 수는 10,875명으로, 이 중 일시보호 노숙인은 1,173명,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1,246명임(보건복지부, 2020)
 - 2019년 현재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총 8,456명임. 이 중 재활·요양시설 거주 노숙인은 6,933명(82.0%), 자활시설 노숙인은 1,523명(18.0%)임
-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전체 노숙인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음
 - 2013년 12,656명이던 노숙인은 2019년 12월 현재 10,875명으로 14.1% 감소하였음
 - 이는 대부분 생활시설 노숙인이 줄어든 것으로, 2019년 시설거주 노숙인의 수는 2013년에 비해 20.3% 감소함
- 반면, 거리노숙인은 2013년 1,197명에서 2019년 1,246명으로 4.1% 증가하였음
 - 거리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규 거리노숙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거리노숙인 4명 중 3명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거리생활을 하고 있으며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 대도시 거리노숙이 전체의 82.7%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서울 1,049명(43.4%), 경기 230명(9.5%)으로 수도권에서 약 52.9%의 거리노숙인이 발견되고 있으며, 광주 212명, 대구 183명, 부산 165명, 인천 162명, 울산 115명, 경남 113명 순임



[그림 II-1]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표 II-1> 연도별 노숙인 등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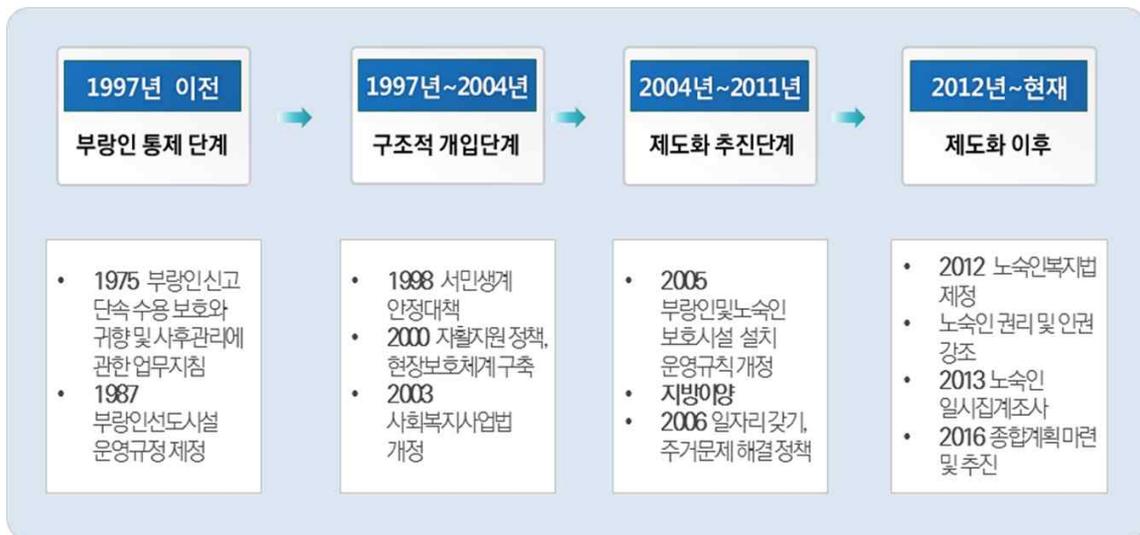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노숙인 등 전체	노숙인 전체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		쪽방 주민
			거리노숙인	거리	일시 보호		자활	재활 요양	
2009	20,324	13,930	1,260	1,260	-	12,670	3,404	9,266	6,394
2010	19,384	13,152	1,077	1,077	-	12,075	3,117	8,958	6,232
2011	19,136	13,145	1,121	1,121	-	12,024	3,282	8,742	5,991
2012	18,282	12,391	1,081	1,081	-	11,310	2,741	8,569	5,891
2013	18,648	12,656	2,041	1,197	844	10,615	2,095	8,520	5,992
2014	18,494	12,347	2,037	1,138	899	10,310	1,949	8,361	6,147
2015	17,973	11,901	2,170	1,125	1,045	9,731	1,683	8,048	6,072
2016	16,698	10,645	1,767	969	798	8,878	1,613	7,265	6,053
2017	16,533	10,828	1,856	862	994	8,972	1,583	7,389	5,705
2018	16,465	10,801	1,942	895	1,047	8,859	1,684	7,175	5,664
2019	16,516	10,875	2,419	1,246	1,173	8,456	1,523	6,933	5,641

자료: 보건복지부(2012~2020).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_거리노숙인 지원정책 발전과정

- 우리나라 노숙인 지원정책은 시기에 따라 부랑인 통제단계, 구조적 개입단계, 제도화 추진단계, 제도화 추진단계, 제도화 이후 현재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II-2] 노숙인 지원 정책 변화 과정

□ 부랑인 통제 단계: 격리와 수용 중심의 보호 담론

-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부터 1997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부랑인 통제기’라 할 수 있음. 이 시기에는 부랑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격리와 단속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함
 - 1975년 사회통제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내무부(지금의 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발표함
 - 훈령은 ‘통제’와 ‘단속’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랑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질병, 장애, 게으름, 위협과 같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음

부랑인: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接客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상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검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내무부 훈령 제410호, 1975)

- 이 시기 정책은 시설에 부랑인을 격리 보호하여 거리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격리와 수용 중심의 보호 담론’이 정책을 지배하던 시기라 할 수 있음
 - 1980년대에 이르러 부랑인은 ‘격리’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1981년 부랑인에 대한 일제단속과 사회조사 실시 이후 국가 차원의 “부랑인 보호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 복지시설이 정비·증설됨. 이 대책에서 정부는 부랑인 보호사업을 “국가 복지정책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 도시 정화를 이유로 부랑인들을 시설로 입소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음.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충남 성지원 사건 등 연이은 인권 유린 사례는 부랑인 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과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촉발시킴
 - 이에 정부는 1987년 내무부 훈령 410호를 폐지하고 1987년 “부랑인 복지시설운영개선 종합대책” 및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함
 - 그러나 이 당시에도 부랑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거 신고와 단속의 대상이었던 부랑인이 보호와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변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이들을 규정하는 법령은 부랑인을 “통행인을 괴롭히거나”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곤란하게 하고”, “정상적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자로 규정함

부랑인: 일정한 연고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핍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정신 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 폐질자(부랑인시설 운영개선방안, 1987)

- 주무부서가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변경된 뒤로도 부랑인은 20여 년 간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활용되어 옴

□ 구조적 개입 단계: 생산적 복지에 기반을 둔 자활 담론

-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거리노숙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기존의 부랑인 정책과는 별도로 다양한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1998년 4월 보건복지부는 “서민생계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대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에서 노숙인 정책과 부랑인 정책이 구분됨
 - 2000년 이후에는 응급보호 및 쉼터를 통한 관리에서 ‘자활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자활 및 재활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함
 - 노숙인 감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일시적인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자 ‘쉼터’를 거점으로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임
 - 서울시는 재활프로그램, 정신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의집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노숙자 자활 지원사업 계획’을 2000년 2월에 발표함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후 ‘자활 담론’이 부상하면서 노숙인 복지 또한 ‘자활 담론’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임시방편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본인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필요하게 되고, 쉼터 등 시설이 노숙인 자활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음
- 한편, 거리노숙인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보호센터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현장보호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음
 - 현장과 밀접하게 위치하여 쉼터 입소 요청자를 전문 상담하는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는 거리노숙인 대책을 한층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됨(이태진 등, 2007)
- 노숙인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의 연계가 시도되었음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랑인 보호’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로 변경됨(제2조(정의), 2004년 7월 시행)
 - 부랑인복지시설의 대규모 수용, 혼합수용 등 현대적 사회복지의 틀과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부각되면서 노숙인 복지와의 연계를 통해 그들의 변화를 시도함(정원오 등, 2011)

□ 제도화 추진 단계

-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제도화 추진 단계’로 볼 수 있음
 -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실직노숙자’를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2004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가 명시되었음(제34조 제4항). 이에 따라 2005년 1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을 개정, 정책 추진에 있어 부랑인뿐만 아니라 노숙인을 포괄하도록 재정비함

부랑인: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2005)

- 상담보호센터 및 노숙인보호시설(노숙인쉼터)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배치기준과 노숙인 쉼터의 입소 또는 퇴소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부랑인 또는 노숙인에 대한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이 때 처음으로 ‘노숙인’이 공식적인 법령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법령의 문언상으로는 생업수단의 유무로 부랑인과 노숙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어떤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을 나눔. 즉,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부랑인으로,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은 노숙인으로 구분함(이동희, 2010)
-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2005년부터 노숙인 복지사업 중 거리노숙인 중심 시설인 자활·일시보호시설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 책임 하에 운영됨
 - 기존의 부랑인 시설인 재활·요양시설과 거리노숙인 중심 시설인 자활·일시보호 시설 등으로 구분됨. 재활·요양시설 운영은 국비지원사업, 거리노숙인사업·자활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쪽방주민지원사업 등은 지방이양사업임
- 2006년 일자리 갖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일자리 정책이 차츰 내실을 갖추어 감
 - 서울시의 경우 건설현장, 공원주변 청소, 자원 재활용, 복지관 지원 등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실시됨(신원우, 2019).

- 또한, 이 시기에는 노숙인 주거문제가 노숙인 복지정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음
 - 2006년 LH공사가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2011년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함
- 이 시기까지 ‘부랑인’과 ‘노숙인’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였지만, 차츰 구분이 모호해진 시점에 이르게 됨. 노숙인들이 부랑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고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기도 하는 등 시설 간 이동이 빈번해 짐
 - 정책적으로도 노숙인 정책이 ‘보호, 재활, 자활’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두 집단 대상 정책 모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다르지 않았음
 - 다만,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랑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숙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설 수 등에서 차이를 보임. 당시 부랑인보다는 노숙인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됨

<표 II-2> 노숙인·부랑인 사업 비교(2011년)

구분	노숙인	부랑인
사업목적	노숙인 보호, 재활, 자활	부랑인 보호, 재활, 자활
사업주체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사업대상	거리노숙인, 쉼터 노숙인 4,187명 - 거리노숙인 3,113명 - 쉼터노숙인 1,074명	부랑인시설 입소자 8,958명
시설현황	쉼터 74개소, 상담보호센터 13개소	법인시설 37개소, 개인시설 14개소
사업내용	노숙인시설운영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기능보강비),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사업	부랑인시설운영 (인건비, 운영비, 자활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부랑인복지지원 (시설협회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2011년 예산	374억 원	400억 원(국비 253억 원, 지방비 147억 원)
법적근거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좌동

자료 : 보건복지부(2011)

- 이에 대해 이태진 등(2007)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대상으로 노숙인과 부랑인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동일한 정책 대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렇게 노숙인 보호시설이 유형에 따라 설치되면서 노숙인은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으로 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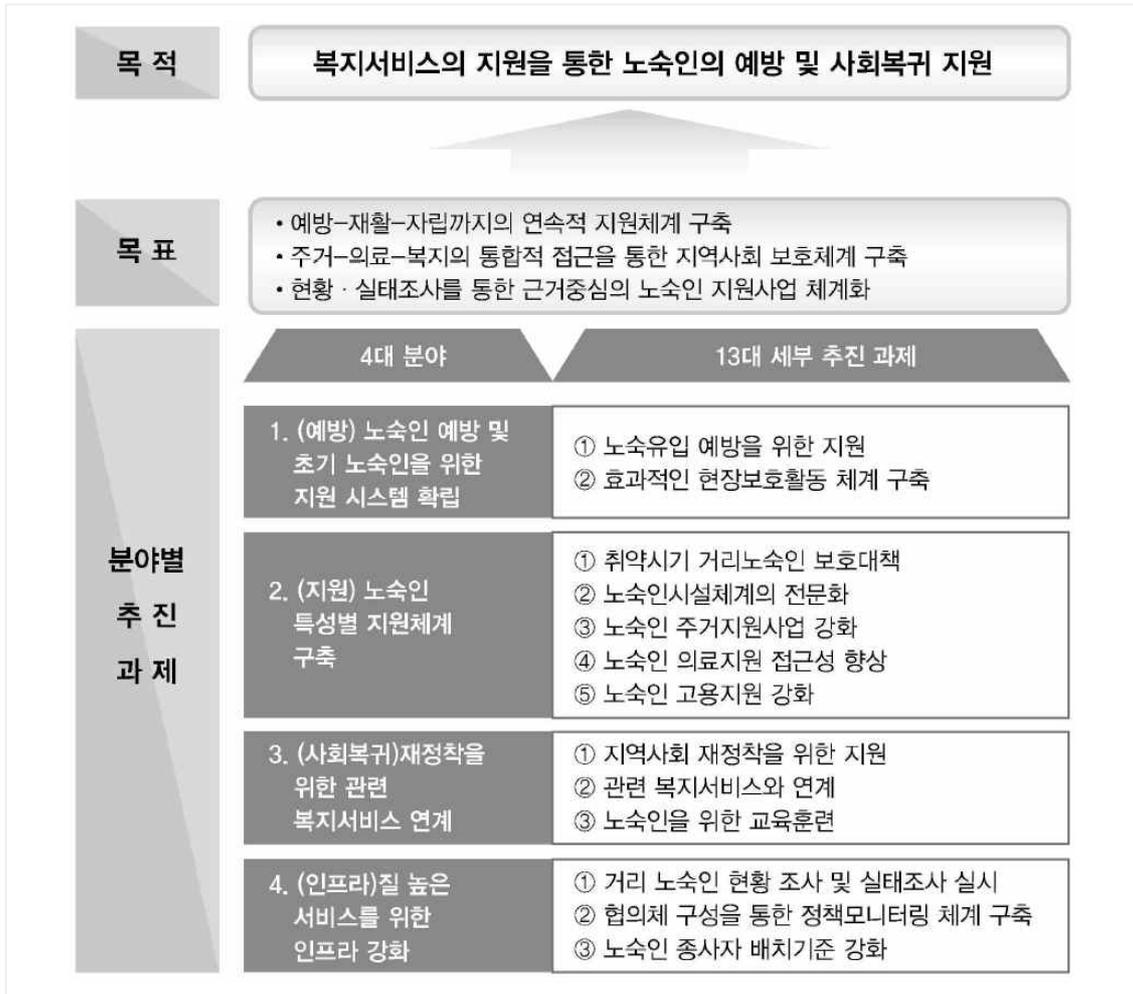
□ 제도화 이후 :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인권 담론

- 노숙인 지원 체계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는 2012년 「노숙인복지법」의 시행(2011. 6. 7. 제정) 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법의 시행으로 노숙 예방 그리고 탈노숙을 목적으로 시설체계를 전문화하고, 주거, 의료, 고용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함
 -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별개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 법으로 제정되면서 노숙인 정책의 법적 대상이 대폭 확대됨.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숙인’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들 거리노숙인 뿐 아니라 쪽방, 고시원 등 기타 불안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기 위해 ‘노숙인 등’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됨

노숙인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2)

- 이를 계기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숙인 지원서비스가 체계화 됨
 - 「노숙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첫째, 정책의 대상이 부랑인, 노숙인 그리고 쪽방 주민 등을 포괄하는 ‘노숙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둘째, 기존 부랑인시설 및 노숙인쉼터를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함. 셋째, 주거, 자활, 직업, 의료, 급식 및 현장지원 등 복지서비스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가 강화됨
 - 「노숙인복지법」 제9조를 근거로 5년마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PIT; Point-in-time Counting)를 실시하고,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16~2020년”를 마련하고 추진함

- 이 계획은 4대 분야 13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II-3] 참조).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숙 취약계층의 노숙방지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2016b: 21)

[그림 II-3]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노숙인복지법」 제정은 ‘노숙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노숙인 복지가 ‘인권’의 문제이자 ‘권리’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지님
 - 물론 정책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자활 담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 이와 함께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노숙인 정책의 지자체간 편차 문제, 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일시적 대응에 머물고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음

2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1_거리노숙인 지원정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거리노숙인 지원 정책은 상담활동, 주거 지원, 의료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고용지원, 교육훈련, 시설 입소 그리고 관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있음(보건복지부, 2016).
- 이 절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만성화된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주요 분야 별로 살펴보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거리노숙인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임
- 이 법에 따르면 수급은 곧 권리로 인식되며, 노숙 위기의 사람, 시설생활 노숙인, 거리생활 노숙인도 지원대상임. 또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7가지의 급여와 연계하고 있음
 - 근로능력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 혹은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함(보건복지부, 2020d).
 -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가지로 세분화하여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와 연계됨(제7조)

○ 한편, 이 법에서는 거리노숙인과 관련한 보장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표 II-3> 참조)

<표 II-3>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방안

구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노숙인
			주민등록 설정자		주민등록 확인 불가자 등	
			시설소 재	타지소 재		
관 리 수 단	실제거주요 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 거주	최소 1개월 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 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 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 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요건부 과	○	○	×	×	×
비 고	생계급여방 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 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 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2020d; p.351).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보면,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거주 주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은 첫째, 수급자가 실제 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법 제19조), 둘째, 급여종류별 선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에서는 첫째,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중에서 둘째, 구 노숙인쉼터를 포함해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해야 함

- 이처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리에서 생활해온 거리노숙인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또한, 노숙인쉼터 이용 거리노숙인도 수급대상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9조 제2항), 노숙인과 관련된 보장시설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복지시설)로 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0d)

□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욕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핵심인 최후의 안전망 제도임
 - 2006년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임.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이 제도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만성화된 거리노숙인이 지원을 받기에는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따름
 - 노숙인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첫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한 후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이며 둘째,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함.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됨
 - 여유진 등(2018)에 따르면, 노숙인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2014년 269건(0.61%), 2015년 354건(0.38%), 2016년 336건(0.48%), 2017년 349건(0.44%)임
 - 또한, 노숙을 사유로 수급자가 된 경우엔 다른 사유로 인한 수급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급 기간이 다소 짧았고, 대체로 독거가구라는 점에서 수급액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만성화된 거리노숙인은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되는데, 그 방식은 첫째,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둘째, 신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임시거주지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함. 셋째, 시·군·구에 직접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을 연계하여 지원함
- 한편,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종합지원센터 등 상담여부를 확인함. 이 때 작성된 긴급지원의뢰서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 결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거지원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퇴거하도록 조치함(보건복지부, 2020e)

□ 주거지원서비스

- 노숙인 주거지원서비스는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임시주거비 지원 등이 있으며(노숙인복지법 제10조), 노숙인등복지시행령 제4조에 주거지원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 최초의 노숙인 주거정책은 ‘자활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음. 자활의 집은 시·군·구청장이 전세 계약한 주택을 가족단위 노숙인을 우선순위로 하여 최장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정책으로 1999년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2000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었음(이태진 등, 2003).
-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탁 쉼터에 떠넘기는 한계가 있으나, 가족해체를 방지한다는 점, 취업이나 주거지 마련과 같은 긍정적 퇴거가 다수라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주거지원은 집단합숙형태의 쉼터가 아닌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으로 2~3명 단위의 전세방을 제공하는 ‘자활의 집’ 형태로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1인 단위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독립주거지원 형태가 늘고 있으며, 재원도 다양해지고 있음. 여기에서는 시설보호를 제외한 주거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임시주거비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공공임대주택 지원 서비스

-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현행 제도상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노숙인 및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토교통부가 공급·지원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임(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방식에 따라 신규 건설, 기존 주택 매입, 기존 주택 임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규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음
 - 기존 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의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장 20년임
 - 기존 주택 임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집주인과 공공부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다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공공 주택사업자와 취약계층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임
- <표 II-4>는 노숙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지원 서비스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두 서비스는 모두 거리노숙인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임대보증금 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함. 둘째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표 II-4> 노숙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서비스

구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매입임대/전세임대)
개요	LH 및 SH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등에게 보증금이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 지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자격요건: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소득기준요건: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시장·구청장이 LH 및 SH에 통보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주거급여조사기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타 자격: 자산(토지, 금융, 자동차 포함) 1.78억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50만 원(매입, 전세임대 동일) - 월 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 월세환산액 	- 임대보증금: 50만 원

자료: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LH청약센터(apply.lh.or.kr)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LH 및 SH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해주는 서비스로 노숙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 서비스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신청 가능함.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음. 임대보증금은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택 위치가 정해져 있고 공급물량이 매우 적으며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수준이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높은 경향이 있음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노숙인 등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함. 임대보증금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도 공급량 부족, 긴 대기기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긴급주거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제도도 있음. 이 제도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② 지역과 가구원수를 기준(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이내)으로 하여 거소사용 비용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20e).
 - 다만,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을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그리고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
- 긴급지원이라는 성격상 기간, 주거지로서의 적절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임
 - 긴급주거지원제도에서는 ‘단기 지원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① 지원 기간을 9개월로 한정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함. ② 지원 종료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③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지원은 불가능함(다만,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 실제로,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거소들은 대체로 주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생활이 불편한 문제가 있음(서울주택도시공사, 2020)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 한편 서울시는 특정바우처 지원사업,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함

-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퇴거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노숙인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에서 퇴거한 경우이거나 쪽방의 경우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에 필요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함.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함(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지원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함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 할 수 있음
- 임시주거 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인 및 초기노숙을 포함하여 노숙위기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월 25만 원 기준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비(월세) 지원, 생활용품 지원, 행정지원, 취업지원, 생활상담 및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함
 - 2018년 임시주거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84%에 이룸(2019년 1월 기준)

□ 고용지원 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 지원사업을 실시함(노숙인복지법 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지도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아업 등과 같은 유형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음(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제5조)
 -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 공공일자리아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자활시설, 쪽방상담소)에서는 각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
 - 노숙인 자활시설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함
 - 쪽방상담소에서는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코레일·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자간 민관협력으로 서울역 노숙인에게 ‘서울역미화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함(2012. 3.)
 - 거리노숙인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월 40만 원)+주거비(월 25만 원) 지원, 실적이 좋은 경우엔 코레일 위탁 청소업체에 취업지원
- 거리 생활 노숙인을 위한 주요 보호 대책(보건복지부, 2020a)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숙인에게 희망근로와 자활사업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며, 취업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음

2_지방정부의 거리노숙인 지원 구조

□ 조례

-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노숙인복지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서의 근거조항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며, 임의조항은 제10조(주거지원), 제11조(급식지원), 제12조(의료지원),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13조(고용지원),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1조의4(지도·감독) 등이 있음
 - 2005년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노숙인 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음
- 그러나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8개 광역자치단체와 9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함(<표 II-5> 참조)
 - 2020년 8월 현재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임
 - 기초자치단체는 대전 동구,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태백시, 천안시, 전주시, 목포시, 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함
 -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곳은 대구, 부산, 제주, 안양 등 4곳에 불과함

<표 II-5> 노숙인복지법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시행일	상위법상의 정의 규정 일치 여부	자치단체장의 책무 규정	
광역 (8)	경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9.	○	임의조항
	광주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2. 6. 8.	○	임의조항
	대구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10.	○	의무조항
	대전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 1.	○	임의조항
	부산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16.	○	의무조항
	서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5.	○	임의조항
	인천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 2.	×	임의조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 1.	○	의무조항
기초 (9)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14.	○	임의조항
	목포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21.	○	임의조항
	성남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18.	×	임의조항
	안산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5. 8. 10.	○	임의조항
	안양	안양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5.	×	의무조항
	전주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4. 28.	×	임의조항
	창원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9. 2. 15.	○	임의조항
	천안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	○	임의조항
	태백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2019. 6. 27.	×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예산

- 2005년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국고지원사업과 자자체 사업으로 재원 분화되었음
 - 재활·요양시설 운영은 국고지원사업이며, 거리노숙인사업·자활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쪽방주민지원사업 등은 지방이양사업임
- <표 II-6>은 최근 3년간 노숙인 지원 정책 예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II-6> 최근 3년간 노숙인 지원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8	2019	2020	증감률
중앙	보건복지부	36,095	39,585	45,383	25.7%
광역	서울	53,700	51,559	58,133	8.3%
	경기	6,460	6,736	7,203	11.5%
	대구	11,452	13,586	14,254	24.5%
	대전	3,614	3,848	4,228	17.0%
	부산	7,257	8,162	8,740	20.4%
기초	수원	3,050	3,202	3,777	23.8%
	창원	20	20	25	25.0%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9). 202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숙인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45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 2019년 확정 예산액 405억 8,500만 원에 비해 47억 9,800만 원(11.8%) 증가함
 - 2018년 360억 9,500만 원에 비해서는 25.7% 증가함. 노숙인 지원정책은 타 부처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 예산 규모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서울시는 2018년 약 537억 원 규모였으나 2020년 예산은 8.3% 증가한 약 581억 3,300만 원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24.5%)을 보인 대구는 2020년 약 142억 5,400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음. 다음으로 부산(약 87억 4천만 원), 경기(약 72억 3천만 원), 대전(42억 2,8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2020년 노숙인 등 지원 예산은 581억 3,309만 원임. 이는 2018년(536억 9,952만 원) 대비 8.3% 증가(44억 3,356만 원)한 것이며, 515억 5,875만 원으로 배정된 2019년 예산(65억 7,433만 원)에 비해서는 1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대구시의 노숙인 등 관련 예산은 2018년 95억 7,938만 원, 2019년 117억 7,222만 원, 2020년 120억 9,763만 원으로 매년 증가함. 한편, 대구시는 매년 별도의 항목으로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예산을 기금(5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배정하고 있음

- 2020년 대전시의 노숙인 등 지원 관련 예산은 42억 2,848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억 원 증가함
 - 국가예산은 1억 8천만 원, 대전시 자체 예산은 4억 3천만 원 증가
 - 대전시 자체 예산 증가는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지원, 쪽방상담소 지원, 쪽방주민 명절한마당 지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인한 것임
 - 부산시는 2020년 사업 예산으로 2019년 대비 7.1%(5억 7,819만 원) 증가한 87억 4천만 원을 편성함
 -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외의 경우 2020년 노숙인 지원 관련 예산은 약 37억 7,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3.8%, 2019년 대비 18.0% 증액됨
 - 창원시는 2020년 노숙인 등 지원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18년(2,000만 원) 및 2019년(2,0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음
-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설지원과 관련한 예산에 집중되어 있음(<표 II-7> 참조)

<표 II-7> 노숙인 지원 관련 예산 구성(2020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시설지원		자활지원		기타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중앙	보건복지부	45,383	44,691	98.5%	558	1.2%	134	0.2%
광역	서울	58,133	26,387	45.4%	31,746	54.6%	-	0.0%
	경기	7,203	6,526	90.6%	591	8.2%	85	0.1%
	대구	14,254	13,816	96.9%	439	3.1%	-	0.0%
	대전	4,228	3,978	94.1%	244	5.8%	7	0.0%
	부산	8,740	5,019	57.4%	3,721	42.6%	-	0.0%
기초	수원	3,777	2,317	61.4%	1,459	38.6%	-	0.0%
	창원	25	25	100.0%	-	0.0%	-	0.0%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9). 2020 예산안 및 금융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 2020년 보건복지부의 전체 노숙인 지원예산 대부분(98.5%)은 노숙인 시설 운영 예산으로 필수 경비예산임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가 9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전 94.1%, 경기 90.6%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 부산의 경우엔 시설지원 예산 비중이 57.4%로 자활지원 사업 비중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높았음
 - 서울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54.6%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 시설지원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61.4%의 비율을 보였으며, 창원시 전체 예산 모두 시설 지원 사업에 편성되었음
- 이와 같이 시설지원 예산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거리노숙인 지원 사업보다는 생활시설 노숙인 중심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요

1_사업의 배경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숙인 정책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 문제 해결에 있어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거리노숙인의 감소를 위해 시설 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탈노숙 및 자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옴. 그 결과 거리노숙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거리에 남아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위기관리에 머물러 있음
 - 거리노숙인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심화된 지역 간 편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생활시설 운영 중심의 노숙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줄고 있는 상황임
 - 이렇게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지속되는 반면,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한 가운데 장기 거리노숙인의 증가가 차츰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거리노숙인의 만성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리노숙인 통합지원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9)
 - 첫째 대도시 거리노숙인 만성화 현상 발생
 - 둘째 노숙인 지원정책의 편중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셋째, 거리노숙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발굴 및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이는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는 거리노숙인의 만성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단기적 일자리 및 분절적 서비스 제공과 지자체 노숙인 사업의 한계가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음
 - 공동작업장 및 환경미화 등 보호적·단기적 성격의 일자리 및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는 거리노숙인 만성화 해소 미흡(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9)
 - 대다수 지자체의 노숙인 사업은 시설입소자 대상으로 운영하며 거리노숙인 대상으로는 시설입소 상담, 의료지원, 취약시기 보호사업 등 일부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거리노숙인 만성화 해소에는 한계가 존재함(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9)
-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거리노숙인에게 통합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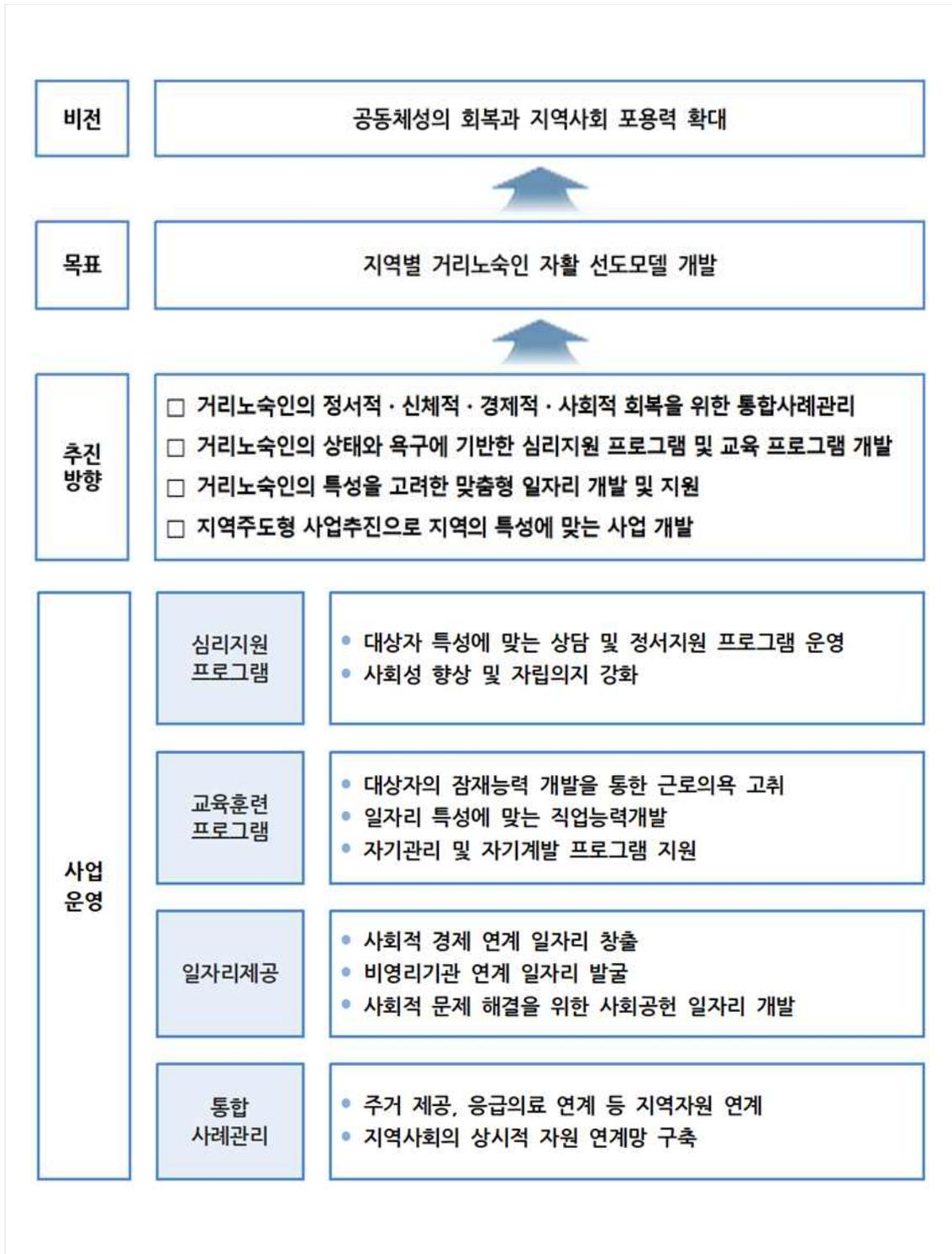
2_사업의 목표와 내용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2005년 거리 노숙인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으로 거리노숙인의 만성화 해소를 목적으로 함
 - 거리노숙인에게 일자리와 심리지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 운영을 위탁하였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소한의 행정 및 운영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역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가이드”(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9)를 통해 시범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등을 간략히 제시함(그림 II-4) 참조)

- 먼저, 시범사업은 지역별 거리노숙인 자활 선도모델 개발을 목표로 함
 - 노숙인 관련 사업경험과 의지가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일자리, 심리지원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거·의료 등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별 거리노숙인 자활사업의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모니터링,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선행 사업지역의 선도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차츰 확산시킨다는 계획임
 - 주지하다시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기에는 코로나19 등 환경적 제약이 크고, 사업수행 기간이 짧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시범사업이 거둬 연장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 <표 II-8>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개요로 사업의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 노숙인 사업과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자활사업에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거리노숙인이 일자리 제공 외에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있도록 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은 사업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근로활동으로 인정받게 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참여수당을 지급함(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9)

<표 II-8>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기본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9년 7월~ 2020년 12월(연장 추진)
사업대상	거리노숙인 200명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 발굴 시점에 거리노숙 상태인 자 · 여관, 찜질방, PC방 등 비정형주거거주자 포함 · 단, 노숙인생활시설 거주자,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사업내용	-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통합사례관리
수행기관	노숙인 관련 사업경험과 의지가 있는 기관 - 노숙인지원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조직
지원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2019: 22)

[그림 II-4]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시범사업 비전과 목표

3_사업의 추진방향

-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 수행기관의 기본 과업이라 할 수 있음
 -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 거리노숙인의 상태와 욕구에 기반한 심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
 -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 특히 기존의 거리노숙인 사업과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시범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함
 - 다소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핵심은 시설입소를 전제로 한 지원, 일시적 위기관리, 일을 통한 자립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노숙인 사업과 달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 자체에 초점을 두고 거리노숙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한다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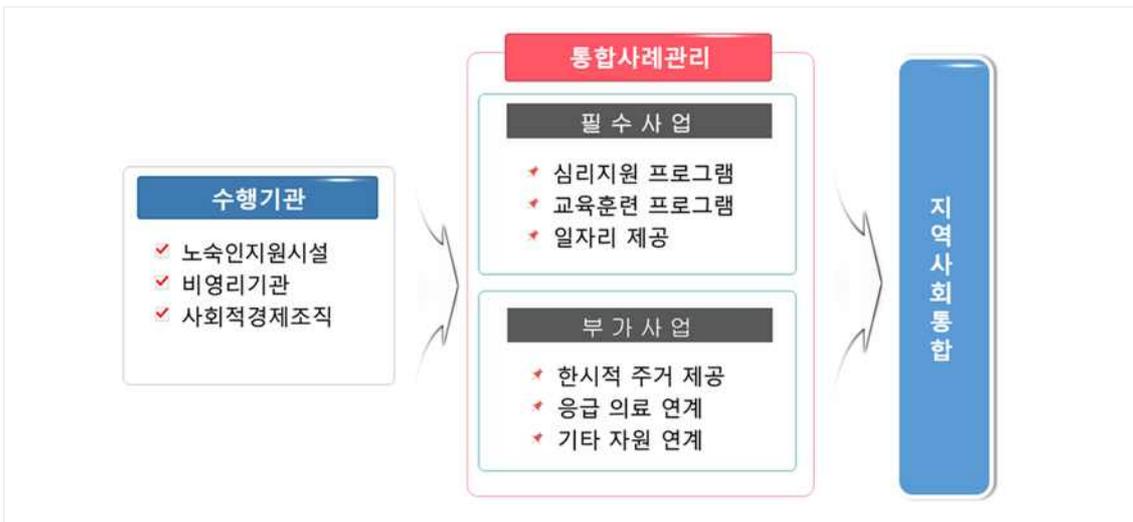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2019: 23)

[그림 II-5] 거리노숙인 통합지원 자활프로그램 추진 개요

- 이는 그간 시설 입소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인해 좀처럼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거리노숙인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일상적인 사회복지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함
 - 이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거리노숙인의 참여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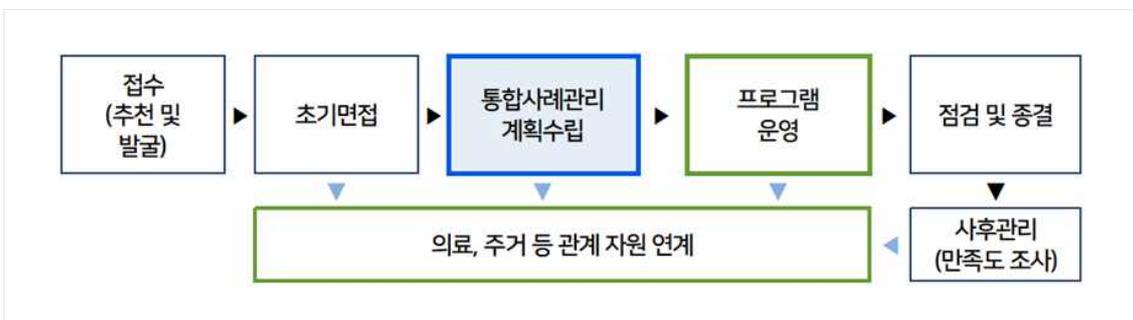
4_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 사업 수행기관이 추진해야 할 사업추진 내용은 [그림 II-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 제공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필수 사업으로 하고, 주거·의료·기타 복지자원 연계를 부가사업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지원함
 - 거리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제공과 복지 자원의 연계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통합사례관리가 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 할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2019: 24)

[그림 II-6]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기관 사업내용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2019: 27)

[그림 II-7]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업무절차 예시

5_사업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은 노숙인 사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기관으로 함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비영리 조직(복지관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결과 전국 6개 도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음
 - 사업 참여 노숙인의 수에 따라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함(20명 당 1인 배치)
 - 2020년 9월 현재 5개 도시 8개 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표 II-9> 참조)
 - 사업의 불안정성, 지역자활센터의 참여 인센티브 미약 등을 이유로 지역자활센터 2개 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을 종료함

<표 II-9>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기관 현황

지역	실행기관	사례관리자	시설유형	비고	
서울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파견	종합지원센터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2020년 3월 종료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사)열린복지 디딤센터		일시 보호 시설 (여성)		
수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대전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부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비파견	종합지원센터		
창원	창원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2020년 7월 종료	

III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 실적

1 사업 실적 분석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사업 수행 결과 중 다음의 세 가지를 주요 실적으로 검토하였음
 - 첫째, 거리노숙인의 사업 참여율과 지속율
 - 둘째,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 셋째,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사업 실적 분석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2019년 12월 말, 2020년 6월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음. 제출한 자료의 양식과 보고 방식의 차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업 수행 실적은 2019년(7~12월)과 2020년(1~6월)을 구분하여 분석함
- 한편, 외부 환경의 변화가 본 사업 수행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사업 수행 기간 내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 사업의 불안정성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외부 자연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프로그램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음
 - 불안정한 사업 수행 여건, 잦은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중단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따라서 본 실적 분석은 기관별 특성이나 지역적 차이에 원인을 두는 등의 무리한 해석을 삼가고, 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정량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한정하고자 함. 특히 사업 수행의 결과가 자칫 기관별 평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함

2 거리노숙인 참여 실적

1_거리노숙인 참여율

- 거리노숙인의 참여 정도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변수임. 이 사업은 그간 좀처럼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리노숙인의 참여를 유인하는가? 이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이 시작된다 할 것임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참여자 수는 2019년 378명, 2020년 317명으로 총 695명의 거리노숙인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 이는 각 기관이 당초 목표한 183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목표 인원 대비 달성률로 보면 2019년 206.6%, 2020년 173.2%에 이룸
 - 예산의 제약에도 사업수행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며, 노숙인의 참여 의지 또한 애초의 예측보다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음

(단위: 명)



[그림 III-1]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표 III-1>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단위: 명, %)

지역	실행기관	목표인원	2019년		2020년		계
			참여인원	달성률	참여인원	달성률	
계		183	378	206.6%	317	173.2%	695
서울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	43	215.0%	30	150.0%	73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25	42	168.0%	29	116.0%	71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20	46	230.0%	36	180.0%	82
	(사)열린복지 디딤센터	15	23	153.3%	23	153.3%	46
수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31	155.0%	36	180.0%	67
대전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46	230.0%	42	210.0%	88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42	210.0%	27	135.0%	69
부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30	84	280.0%	72	240.0%	156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8	11	137.5%	16	200.0%	27
창원	창원지역자활센터	5	10	200.0%	6	120.0%	16

2_거리노숙인 사업 참여 지속율

- 거리노숙인의 사업 참여 지속율은 2019년 71.2%, 2020년 47.6%임
 - 2019년 12월 말 기준 사업 참여자는 269명으로 참여인원 대비 71.2%의 거리노숙인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함
 - 2020년 6월 말 기준 사업 참여자는 151명으로 47.6%의 지속율을 보임. 코로나19로 인해 20.0%에 달하는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임
- 이 중 자발적 이탈률은 2019년 14.6%, 2020년 10.7%에 그쳐 거리노숙인의 사업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이 시작된 2019년의 경우 연락두절 및 불참 12.7%, 음주 및 갈등 1.9% 등 개인적 사유로 이탈한 중도 중단이 전체의 14.6%를 차지함
 - 취업 및 복지자원연계로 인한 사업 종료가 12.2%에 이룸(수급 및 긴급지원 5.0%, 취업 4.2%)
 - 2020년의 경우 연락두절, 불참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탈은 10.7%에 불과함
 - 취업 및 복지자원 연계로 인한 종료는 20.2%(수급 및 긴급지원 15.8%, 취업 4.4%)임

<표 III-2> 사업 참여 지속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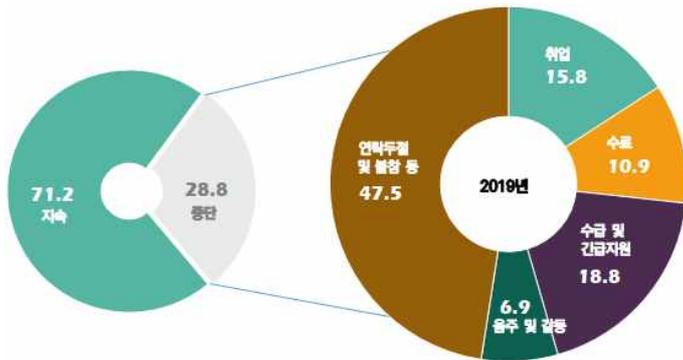
실행기관	목표 인원	2019년			2020년		
		참여 인원	최종 인원	지속률	참여 인원	최종 인원	지속률
계	183	378	269	71.2%	317	151	47.6%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	43	40	93.0%	30	15	50.0%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25	42	27	64.3%	29	27	93.1%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20	46	35	76.1%	36	17	47.2%
(사)열린복지 디딤센터	15	23	19	82.6%	23	13	56.5%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31	31	100.0%	36	19	52.8%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46	34	73.9%	42	23	54.8%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42	38	90.5%	27	12	44.4%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30	84	28	33.3%	72	18	25.0%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8	11	11	100.0%	16	4	25.0%
창원지역자활센터	5	10	6	60.0%	6	3	50.0%

주.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는 2020년 3월 말 사업 종료

<표 III-3> 참여 종료 사유(2019년)

종료 사유	비율
계	100.0
연락두절 및 불참	47.5
음주 및 갈등	6.9
프로그램 수료	10.9
수급 및 긴급지원	18.8
취업	15.8
코로나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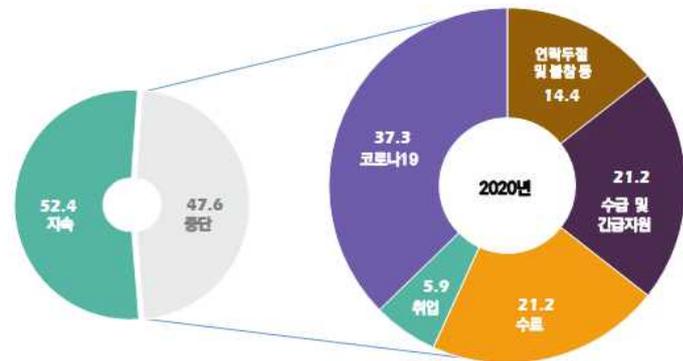
[그림 III-2] 참여 종료 사유(2019년)



<표 III-4> 참여 종료 사유(2020년)

종료 사유	비율
계	100.0
연락두절 및 불참	14.4
음주 및 갈등	-
프로그램 수료	21.2
수급 및 긴급지원	21.2
취업	5.9
코로나19	37.3

[그림 III-3] 참여 종료 사유(2020년)



□ 사업 참여자의 특성

- 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성별과 연령, 노숙원인, 노숙기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중심으로 파악함
-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가운데, 40-50대 거리노숙인의 참여가 많았음
 - 2019년 참여자 378명 중 남성은 340명(89.9%), 여성은 38명(10.1%)이며, 2020년 참여자 317명 중 남성은 284명(89.6%), 여성은 33명(10.4%)으로 집계됨
 -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사)열린복지 디딤센터) 입소자 외에도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 다수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2019년 15명, 2020년 10명)
 - 2019년 참여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28명(33.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17명(31.0%), 60대 55명(14.6%), 30대 50명(13.2%)의 순이었음(평균연령 49.1세). 2020년 참여자 역시 50대가 116명(36.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40대 95명(30.0%), 60대 51명(16.1%), 30대 35명(11.0%) 순으로 나타남(평균연령 49.9세).
- 경제적 문제로 인한 노숙이 노숙 원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2019년 참여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노숙이 65.5%, 가정불화로 인한 노숙이 21.2%로 나타남
 - 2020년 참여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노숙 64.7%, 가정불화 22.1%로 유사한 분포를 보임
- 장기노숙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1년 미만' 노숙인이 27.0%, '1년 이상' 노숙인이 73.0%로 장기노숙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이 중 '3년 이상' 노숙인은 54.0%에 달함
 - 2020년 참여자의 경우 '1년 미만' 노숙인은 14.5%, '1~3년 미만' 노숙인은 33.1%, '3년 이상' 노숙인은 52.4%로, 2019년에 비해 노숙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됨
- 대체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거리노숙인의 참여가 많았음
 - 질환이 없는 참여자의 비율은 2019년 69.6%, 2020년 57.7%임
 - 장애가 없는 참여자의 비율은 2019년 89.4%, 2020년 88.3%임
- 경제상태 등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에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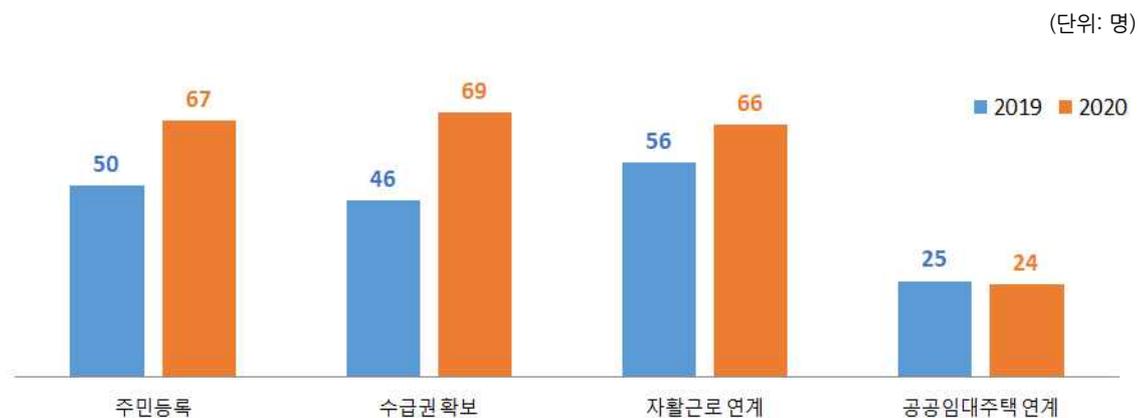
<표 III-5>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2019년		2020년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성별	남성	340	89.9	284	89.6
	여성	38	10.1	33	10.4
	계	378	100.0	317	100.0
연령	10대	1	0.3	-	-
	20대	20	5.3	14	4.4
	30대	50	13.2	35	11.0
	40대	117	31.0	95	30.0
	50대	128	33.9	116	36.6
	60대	55	14.6	51	16.1
	70대	7	1.9	6	1.9
	계	378	100.0	317	100.0
노숙원인	경제적 문제	243	64.5	202	64.7
	가정불화	80	21.2	69	22.1
	건강문제	20	5.3	21	6.7
	연계망 상실	21	5.6	15	4.8
	기타	13	3.4	5	1.6
	계	377	100.0	312	100.0
노숙기간	1년 미만	54	27.0	46	14.5
	1년 ~ 3년 미만	38	19.0	105	33.1
	3년 이상	108	54.0	166	52.4
	계	200	100.0	317	100.0
질환여부	있음	115	30.4	80	42.3
	없음	263	69.6	109	57.7
	계	378	100.0	189	100.0
장애여부	있음	40	10.6	33	11.7
	없음	338	89.4	249	88.3
	계	378	100.0	282	100.0
신용상태	양호	145	38.6	140	50.4
	불량	206	54.8	138	49.6
	기타	25	6.6	-	-
	계	376	100.0	278	100.0
통장유무	있음	229	61.2	197	70.4
	없음	118	31.6	29	10.4
	압류	26	7.0	54	19.3
	기타	1	0.3	-	-
	계	374	100.0	280	100.0
채무여부	있음	124	53.9	-	-
	없음	62	27.0	-	-
	기타	44	19.1	-	-
	계	230	100.0	-	-

3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거리노숙인의 주민등록, 수급권 확보, 자활근로 연계,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실질적인 주거·경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옴
 - 2019년 사업에 참여한 378명 중 177명이 노숙상태를 벗어나 제반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았음
 - 주민등록 5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46명, 자활근로 연계 56명, 공공임대주택 연계 25명
 - 2020년에는 317명 중 226명의 참여자가 복지시스템과 연계됨
 - 6개월 간 주민등록 67명,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69명, 자활근로 연계 66명, 공공임대주택 연계 24명



[그림 III-4]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주요 사업 실적

<표 III-6> 2019년 주요 사업실적

(단위:명,%)

실행기관	참여인원	주민등록확보		수급신청선정		자활근로연계		공공주택연계	
		연계	확보율	연계	확보율	연계	확보율	연계	확보율
계	378	50	13.2%	46	12.2%	56	14.8%	25	6.6%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3	3	7.0%	1	2.3%	-	-	2	4.7%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42	5	11.9%	13	31.0%	9	-	3	7.1%
햇살보금자리일시보호시설	46	2	4.3%	0	0.0%	-	-	-	-
(사)열린복지디딤센터	23	1	4.3%	1	4.3%	-	-	2	8.7%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31	19	61.3%	14	45.2%	26	83.9%	17	54.8%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46	2	4.3%	2	4.3%	17	37.0%	1	2.2%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42	6	14.3%	1	2.4%	1	2.4%	-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84	9	10.7%	7	8.3%	-	-	-	-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11	3	27.3%	3	27.3%	1	9.1%	-	-
창원지역자활센터	10	-	-	4	40.0%	2	20.0%	-	-

주. 확보율은 참여인원 대비 연계된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표 III-7> 2020년 주요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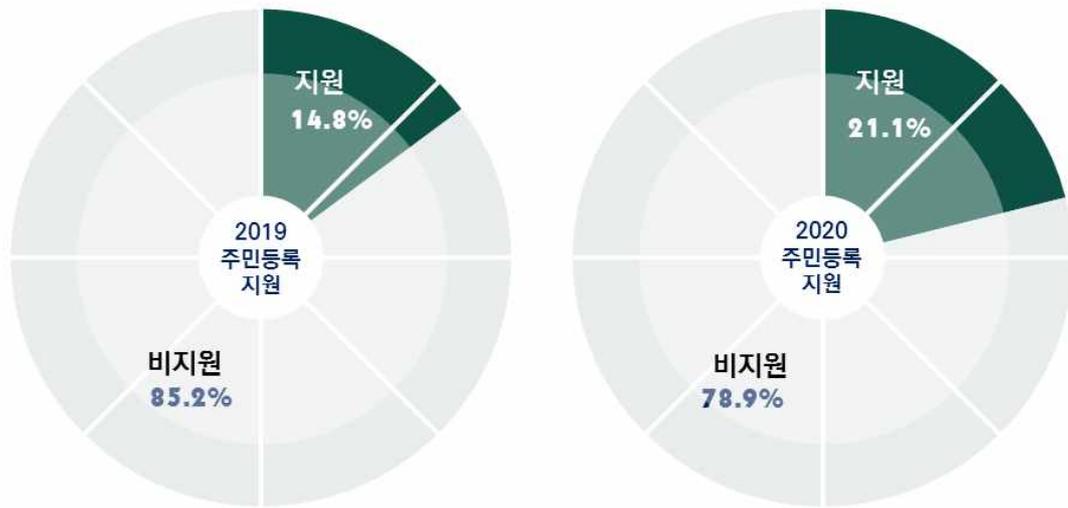
(단위: 명, %)

실행기관	참여인원	주민등록확보		수급신청연계		자활근로연계		공공주택연계	
		연계	확보율	연계	확보율	연계	확보율	연계	확보율
계	317	67	21.1%	69	21.8%	66	22.2%	24	7.6%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30	30	100.0%	11	36.7%	2	6.7%	2	6.7%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29	4	13.8%	3	10.3%	1	3.4%	-	-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36	-	-	2	5.6%	22	64.7%	5	13.9%
(사)열린복지 디딤센터	23	4	17.4%	3	13.0%	-	-	3	13.6%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36	6	16.7%	14	38.9%	15	83.3%	12	33.3%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42	4	9.5%	3	7.1%	6	14.3%	2	4.8%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27	5	18.5%	4	14.8%	3	11.1%	-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72	10	13.9%	23	31.9%	3	4.2%	-	-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16	4	25.0%	-	-	10	62.5%	-	-
창원지역자활센터	6	-	-	6	100.0%	4	66.7%	-	-

주. 확보율은 참여인원 대비 연계된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 주민등록 지원

- 2019년 전체 참여자 378명 중 56명(14.8%)이 주민등록 지원을 받아 이 중 50명(13.2%)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음
 - 주민등록 지원을 제공한 56건 중 23건(41.1%)은 재발급, 25건(44.6%)이 재등록에 해당함. 반면 주민등록 지원을 연계하였으나 유보 중인 경우도 6건(10.7%)의 사례가 있음
- 2020년에는 전체 참여자 317명 중 67명(21.1%)에게 주민등록을 지원함
 - 주민등록 지원 서비스는 총 67건이 이루어졌는데, ‘재발급’서비스가 23건(41.1%)을 진행하여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재발급및재등록’ 23건(34.3%), ‘재등록’16건(23.9%)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
- 이 외에도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 동행, 행정 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그리고 근로 피복, 교육용품, 그린PC, 폭염대비물품, 방한용품 등 물품 제공 등을 지원함



[그림 III-5] 주민등록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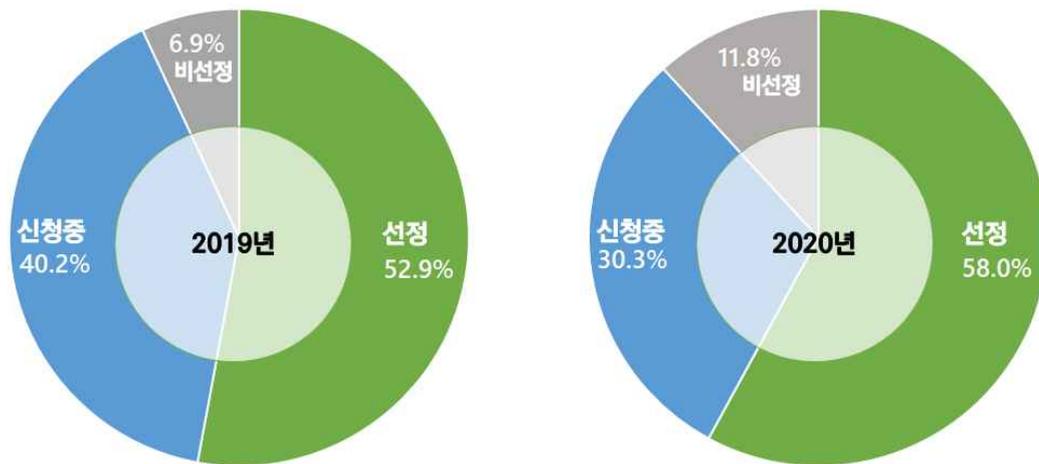
<표 III-8> 기관별 주민등록 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단위:건, %)

구분	재발급		재등록		재발급 및 재등록		유보		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계	23 (41.1)	28 (41.8)	25 (44.6)	16 (23.9)	2 (3.6)	23 (34.3)	6 (10.7)	-	56	67
서울	2	17	1	13	-	-	6	-	9	30
용산	1	1	4	1	-	2	-	-	5	4
햇살	2	-	-	-	-	-	-	-	2	-
디딤	1	1	-	-	-	3	-	-	1	4
수원	7	-	12	-	-	6	-	-	19	6
대전	2	3	-	-	-	1	-	-	2	4
대구	-	-	6	1	-	4	-	-	6	5
희망	8	5	1	-	-	5	-	-	9	10
소망	-	1	1	1	2	2	-	-	3	4
창원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지원

- 2019년 전체 참여자 378명 중 87명(23.0%)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를 지원함
 - 연계 결과 46명(52.9%)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었으며, 35명(40.2%)이 차상위로 선정되었거나 심사 중에 있음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31명 참여자 전원이 수급권을 신청하여 14명(45.2%)이 대상자로 선정됨
- 2020년에는 317명의 참여자 중 119명(37.5%)의 수급 신청을 연계함
 - 연계 결과 119명 중 69명(58.0%)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었으며 34명(30.3%)이 차상위로 선정되었거나 심사 중에 있음
-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족의 수입 등 재산 산정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III-6]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지원 현황

<표 III-9>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계	연계	비연계	계	연계	비연계
계	378	87(23.0%)	291(77.0%)	317	119(37.5%)	198(62.5%)
서울	43	1(2.3%)	42(97.7%)	30	18(60.0%)	12(40.0%)
용산	42	14(33.3%)	28(66.7%)	29	9(31.0%)	20(69.0%)
햇살	46	1(2.2%)	45(97.8%)	36	3(8.3%)	33(91.7%)
디딤	23	6(26.1%)	17(73.9%)	23	5(21.7%)	18(78.3%)
수원	31	31(100.0%)	-	36	31(86.1%)	5(13.9%)
대전	46	4(8.7%)	42(91.3%)	42	7(16.7%)	35(83.3%)
대구	42	1(2.4%)	41(97.6%)	27	4(14.8%)	23(85.2%)
희망	84	19(22.6%)	65(77.4%)	72	35(48.6%)	37(51.4%)
소망	11	4(36.4%)	7(63.6%)	16	1(6.3%)	15(93.8%)
창원	10	6(60.0%)	4(40.0%)	6	6(100.0%)	-

<표 III-10>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 결과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계	선정	비선정	기타	계	선정	비선정	기타
계	87	46(52.9%)	6(6.9%)	35(40.2%)	119	69(58.0%)	14(11.8%)	36(30.3%)
서울	1	1(100.0%)	-	-	18	11(61.1%)	2(11.1%)	5(27.8%)
용산	14	13(92.9%)	1(7.1%)	-	9	3(33.3%)	-	6(66.7%)
햇살	1	-	-	1(100.0%)	3	2(66.7%)	-	1(33.3%)
디딤	6	1(16.7%)	-	5(83.3%)	5	3(60.0%)	-	2(40.0%)
수원	31	14(45.2%)	4(12.9%)	13(41.9%)	31	14(45.2%)	6(19.4%)	11(35.5%)
대전	4	2(50.0%)	-	2(50.0%)	7	3(42.9%)	-	4(57.1%)
대구	1	1(100.0%)	-	-	4	4(100.0%)	-	-
희망	19	7(36.8%)	-	12(63.2%)	35	23(65.7%)	5(14.3%)	7(20.0%)
소망	4	3(75.0%)	1(25.0%)	-	1	-	1(100.0%)	-
창원	6	4(66.7%)	-	2(33.3%)	6	6(100.0%)	-	-

□ 자활근로 연계

- 2019년 자활근로에 연계한 참여자 56명 중 32.1%에 해당하는 18명의 참여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중이거나 예정에 있는 참여자가 38명(67.9%)임
 - 자활근로에 연계하지 않은 경우는 수급 확정이 되었거나(2명), 일반취업이 확정된 경우(1명), 높은 연령(2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2020년에는 66명(20.8%)의 참여자를 자활근로에 연계함

<표 III-11> 기관별 자활근로 연계 여부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계	연계	비연계	계	연계	비연계
계	378	56(14.8%)	322(85.2%)	317	66(20.8%)	251(79.2%)
서울	43	-	43(100.0%)	30	2(6.7%)	28(93.3%)
용산	42	9(21.4%)	33(78.6%)	29	1(3.4%)	28(96.6%)
햇살	46	-	46(100.0%)	36	22(61.1%)	14(38.9%)
디딤	23	-	23(100.0%)	23	0(0.0%)	23(100.0%)
수원	31	26(83.9%)	5(16.1%)	36	15(41.7%)	21(58.3%)
대전	46	17(37.0%)	29(63.0%)	42	6(14.3%)	36(85.7%)
대구	42	1(2.4%)	41(97.6%)	27	3(11.1%)	24(88.9%)
소망	11	1(9.1%)	10(90.9%)	72	3(4.2%)	69(95.8%)
희망	84	-	84(100.0%)	16	10(62.5%)	6(37.5%)
창원	10	2(20.0%)	8(80.0%)	6	4(66.7%)	2(33.3%)

주. 기관의 집계 방식에 따라 참여자 수에 차이가 있음(2020년)

□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긴급복지, 주거급여, 임시주거, 시설 연계,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음
- 2019년에는 219건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연계됨
 - 주거지원은 임시주거지원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쉼터 등 시설연계가 49건, 공공임대주택 연계가 25건으로 거리노숙인의 주거지 확보가 상당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는 6개월 간 122건의 주거지원 연계가 이루어짐
 - 이 중 임시주거지원 서비스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임대주택 연계 24건, 주거급여 연계 23건, 긴급복지 지원 13건(11.3%%) 등의 순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거리노숙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50만 원 부담, ‘썩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함
 -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7]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표 III-12> 주거지원 연계 현황(2019)

(단위: 건, %)

구분	전체	연계	긴급 복지	주거 급여	임시 주거	쉼터 시설	기타 복합
계	378	194 (100.0%)	52 (26.8)	6 (3.1)	77 (39.7)	49 (25.3%)	10 (5.2)
서울	43	38	-	-	38	-	-
용산	42	14	1	-	12	-	1
햇살	46	12	-	-	6	4	2
디딤	23	3	-	-	3	-	-
수원	31	31	31	-	-	-	-
대전	46	30	-	1	17	10	2
대구	42	39	-	-	1	33	5
희망	84	10	5	3	-	2	-
소망	11	10	8	2	-	-	-
창원	10	7	7	-	-	-	-

주. 서비스 별 연계 건수로 개인별 지원 내역에 따라 중복 산정됨

<표 III-13> 주거지원 실적(2020년)

(단위: 건, %)

구분	전체	연계	긴급 복지	주거 급여	임시 주거	쉼터 시설	기타 복합
계	317	98 (100.0%)	13 (13.3%)	23 (23.5%)	51 (52.0%)	3 (3.1%)	8 (8.2%)
서울	30	10	-	10	-	-	-
용산	29	10	1	-	9	-	-
햇살	36	1	-	-	1	-	-
디딤	23	9	-	7	2	-	-
수원	36	21	2	3	8	-	8
대전	42	13	-	-	10	3	-
대구	27	2	-	-	2	-	-
희망	72	12	5	-	7	-	-
소망	16	15	5	3	7	-	-
창원	6	5	-	-	5	-	-

주. 서비스 별 연계 건수로 개인별 지원 내역에 따라 중복 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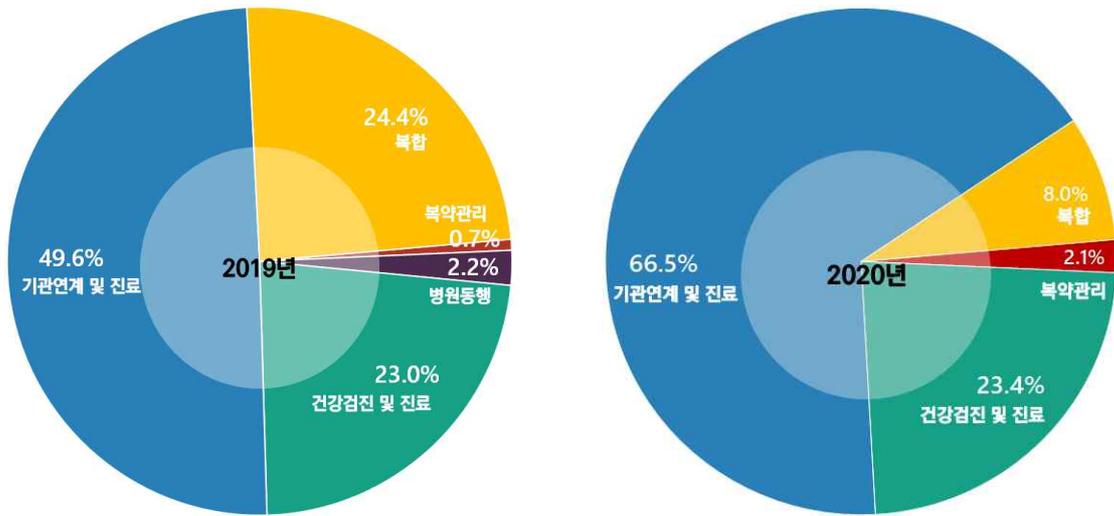
<표 III-14> 공공임대주택 연계 여부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계	연계	비연계	계	연계	비연계
계	378	25(6.6%)	353(93.4%)	317	24(7.6%)	293(92.4%)
서울	43	2(4.7%)	41(95.3%)	30	2(6.7%)	28(93.3%)
용산	42	3(7.1%)	39(92.9%)	29	0(0.0%)	29(100.0%)
햇살	46	-	46(100.0%)	36	5(13.9%)	31(86.1%)
디딤	23	2(8.7%)	21(91.3%)	23	3(13.0%)	20(87.0%)
수원	31	17(54.8%)	14(45.2%)	36	12(33.3%)	24(66.7%)
대전	46	1(2.2%)	45(97.8%)	42	2(4.8%)	40(95.2%)
대구	42	-	42(100.0%)	27	0(0.0%)	27(100.0%)
희망	84	-	84(100.0%)	72	0(0.0%)	72(100.0%)
소망	11	-	11(100.0%)	16	0(0.0%)	16(100.0%)
창원	10	-	10(100.0%)	6	0(0.0%)	6(100.0%)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 사업 참여 노숙인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연계 또한 활발하게 진행함
- 2019년 의료 지원 서비스는 ‘의료기관 연계·진료’가 67건(49.6%)로 가장 많았고, ‘건강 검진 및 검사 지원’ 31건(23.0%), ‘병원 동행’ 3건(2.2%), ‘복약관리’ 1건(0.7%) 순으로 제공됨.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복합 지원한 사례가 33건으로 24.4%의 분포를 보임
- 2020년에 제공된 의료지원 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보이는데,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가 125건(66.5%)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건강 검진 및 검사 지원’으로 44건(23.4%)을 제공함. 이러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지원된 사례는 15건(8.0%)임



[그림 III-8]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표 III-15>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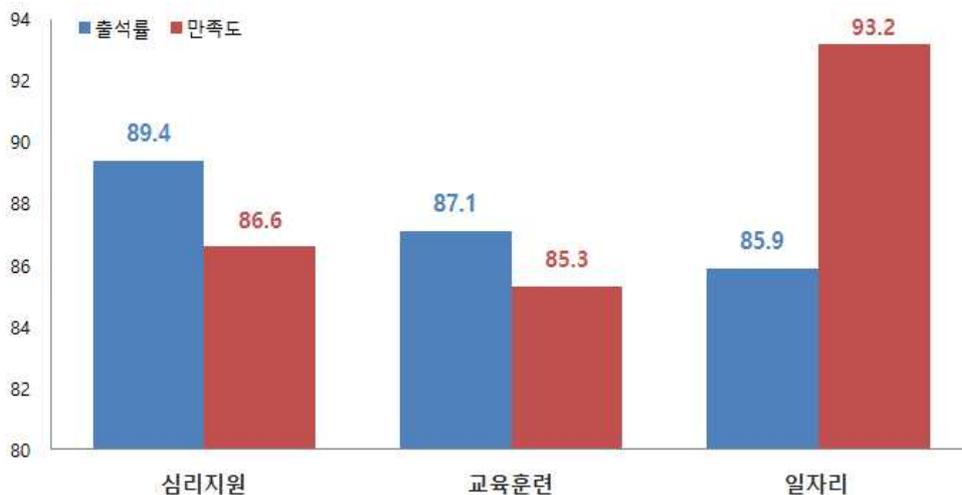
(단위:건,%)

구분	복약 관리		병원 동행		건강 검진 및 검사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		복합		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계	1 (0.7)	4 (2.1)	3 (2.2)	-	31 (23.0)	44 (23.4)	67 (49.6)	125 (66.5)	33 (24.4)	15 (8.0)	135	188
서울	-	3	-	-	1	2	15	25	-	-	16	30
용산	-	-	-	-	11	5	-	8	5	-	16	13
햇살	-	-	1	-	1	-	2	5	-	-	4	-
디딤	1	-	-	-	-	-	3	18	12	7	16	12
수원	-	1	-	-	-	-	4	5	8	7	12	26
대전	-	-	-	-	18	37	-	27	4	-	22	42
대구	-	-	-	-	-	-	30	34	-	-	30	27
희망	-	-	2	-	-	-	6	1	4	-	12	34
소망	-	-	-	-	-	-	3	2	-	-	3	1
창원	-	-	-	-	-	-	4	-	-	1	4	3

4 프로그램 운영 실적

1_프로그램별 출석률과 만족도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 프로그램은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2019년도에 한해 프로그램별 출석률과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석률은 평균 87.0%, 만족도는 평균 86.6점으로 집계됨
 - 출석률은 심리지원 프로그램 89.4%, 교육훈련 프로그램 87.1%, 일자리 프로그램 85.9%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음
 - 반면 만족도는 일자리 프로그램 93.2점, 심리지원 프로그램 86.6점, 교육훈련 프로그램 85.3점으로 수입(소득)에 대한 거리노숙인의 필요를 반영함



[그림 III-9] 프로그램별 출석률과 만족도

2_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운영 실적 차이가 뚜렷함. 각 프로그램별 제공 실적은 각 표로 간략히 제시하였음(<표 III-16~21>)
- 심리지원 프로그램
 -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심리상담’, ‘집단심리치료’,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2019년에는 54개 프로그램이 총 624회 제공됨(누적참여인원 1,129명).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3개의 프로그램이 287회 제공되었음(누적참여인원 409명)
 -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등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민간심리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스트레스 예방 및 분노조절 등 집단심리치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대학교와 자원봉사단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였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
 -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보건 및 위생’, ‘신용회복’, ‘노동 및 복지’, ‘인문학 등 기타’ 등 4개의 분야로 진행되었음.
 - 2019년의 경우 57개 프로그램이 총 300회 제공되었으며 누적인원 1,142명이 참여함.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개 기관(서울지역 4개 기관과 대전)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함. 27개 프로그램이 총 321회 제공되었으며 누적인원 504명이 참여하였음
-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음. 2019년 127건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1,447회 제공되어 4,746명의 누적인원이 참여하였음. 이에 비해 2020년에는 20개 일자리 프로그램이 1,165회 운영되어 1,672명의 누적인원이 참여함
 - 일자리 유형은 대부분 참여노숙인의 근로능력을 감안하여 거리청소와 같은 단순노동, 봉투접기, 박스만들기 등 임가공 등이 주를 이룸

<표 III-16> 기관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현황(2019년)

(단위: 개, 회, 명)

구분	프로 그램 수	개인 심리상담		집단 심리치료		문화 프로그램		합계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계	54	314	97	260	614	50	418	624	1,129
서울	5	20	5	4	5	6	121	30	131
용산	25	8	8	63	273	11	214	82	495
햇살	2	64	41	10	41	-	-	74	82
디딤	3	-	-	12	24	4	5	16	29
수원	1	-	-	34	32	-	-	34	32
대전	6	6	16	37	80	23	20	66	116
대구	3	178	23	10	37	4	42	192	102
소망	5	-	-	34	27	2	16	36	43
희망	2	-	-	18	91	-	-	18	91
창원	4	38	4	38	4	-	-	76	8

<표 III-17> 기관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현황(2020년)

(단위: 개, 회, 명)

구분	프로 그램 수	개인 심리상담		집단 심리치료		문화 프로그램		합계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계	23	255	162	27	207	5	40	287	409
서울	1	15	5	-	-	-	-	15	5
용산	3	8	5	2	24	1	20	11	49
햇살	2	73	36	2	4	-	-	75	40
디딤	1	-	-	1	17	-	-	1	17
수원	3	17	20	4	15	4	20	25	55
대전	4	1	20	7	46	-	-	8	66
대구	3	1	11	2	39	-	-	3	50
소망	2	4	10	4	10	-	-	8	20
희망	3	111	50	5	52	-	-	116	102
창원	1	25	5	-	-	-	-	25	5

<표 III-18>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2019년)

(단위: 개, 회, 명)

구분	프로그램 수	보건 및 위생		노동 및 복지		신용회복		인문학 등 기타		합계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합계	57	25	288	50	227	11	100	214	527	300	1,142
서울	13	-	-	-	-	4	32	137	235	141	267
용산	18	7	103	8	144	4	23	6	89	25	359
햇살	10	3	48	-	-	-	-	7	145	10	193
디딤	3	-	-	38	32	-	-	2	6	40	38
수원	1	-	-	-	-	-	-	41	32	41	32
대전	3	5	20	-	-	2	20	21	20	28	60
대구	1	3	90	-	-	-	-	-	-	3	90
소망	3	7	27	-	-	-	-	-	-	7	27
희망	5	-	-	4	51	1	25	-	-	5	76
창원	-	-	-	-	-	-	-	-	-	-	-

<표 III-19>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2020년)

(단위: 개, 회, 명)

구분	프로그램 수	보건 및 위생		노동 및 복지		신용회복		인문학 등 기타		합계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합계	27	4	48	16	151	3	47	298	258	321	504
서울	11	-	-	-	-	-	-	259	150	259	150
용산	9	4	48	15	128	2	24	-	-	21	200
햇살	1	-	-	-	-	-	-	1	16	1	16
디딤	2	-	-	-	-	-	-	8	46	8	46
수원	-	-	-	-	-	-	-	-	-	-	-
대전	4	-	-	1	23	1	23	30	46	32	92
대구	-	-	-	-	-	-	-	-	-	-	-
소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표 III-20> 기관별 일자리 제공 현황(2019년)

(단위: 개, 회, 명)

구분	프로그램 수	기관 자체		수익형		외부파견		합계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합계	127	938	4,600	127	31	382	115	1,447	4,746
서울	10	192	164	-	-	-	-	192	164
용산	3	25	45	-	-	20	10	45	55
햇살	97	93	1,402	-	-	4	16	97	1,418
디딤	2	-	-	80	10	80	6	160	16
수원	4	-	-	47	21	141	11	188	32
대전	1	50	20	-	-	-	-	50	20
대구	2	-	-	-	-	137	72	137	72
소망	1	92	11	-	-	-	-	92	11
희망	6	99	2,952	-	-	-	-	99	2,952
창원	1	387	6	-	-	-	-	387	6

- 주 1) 기관 자체일자리: 거리청소 그리고 무료급식 보조 및 아웃리치 등과 같은 기관 내의 보조 업무를 말함
 2) 수익형 일자리 : 임가공 작업으로 쇼핑백 접기 및 액세서리 임가공 등을 의미함. 주로 디딤과 수원에서 진행
 3) 외부 파견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등에 파견하여 무료급식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함

<표 III-21> 기관별 일자리 제공 현황(2020년)

(단위: 개, 회, 명)

구분	프로그램 수	기관 자체		수익형 일자리		외부파견		합계	
		프로그램 진행횟수	누적 인원						
합계	20	960	1,601	112	41	93	30	1,165	1,672
서울	2	120	18	-	-	13	18	133	36
용산	2	6	21	-	-	53	2	59	23
햇살	1	116	29	-	-	-	-	116	29
디딤	3	83	4	83	24	-	-	166	28
수원	5	34	23	29	17	27	10	90	50
대전	1	46	23	-	-	-	-	46	23
대구	3	275	19	-	-	-	-	275	19
소망	1	120	16	-	-	-	-	120	16
희망	1	40	1,442	-	-	-	-	40	1,442
창원	1	120	6	-	-	-	-	120	6

- 주 1) 기관 자체일자리: 거리청소 그리고 무료급식 보조 및 아웃리치 등과 같은 기관 내의 보조 업무를 말함
 2) 수익형 일자리 : 임가공 작업으로 쇼핑백 접기 및 액세서리 임가공 등을 의미함. 주로 디딤과 수원에서 진행
 3) 외부 파견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등에 파견하여 무료급식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함

5 소결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 실적은 거리노숙인의 사업 참여율과 지속률,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사업의 불안정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 환경의 잦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첫째, 거리노숙인의 참여율와 지속률이 높은 수준으로, 본 사업의 거리노숙인 유인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참여자 수는 2019년 378명, 2020년 317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19년 206.6%, 2020년 173.2%에 이룸
 - 사업 참여 지속율은 2019년 71.2%, 2020년 47.6%임. 이 중 연락두절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탈률은 2019년 15.7%, 2020년 6.7%에 그쳐 거리노숙인의 사업 참여 지속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장기노숙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1년 이상 노숙인이 2019년 73.0%, 2020년 85.5%를 차지한 가운데, 3년 이상 장기노숙인이 전체의 50%를 상회하였음
- 둘째, 사업 수행 결과 총 695명의 참여자 중 396(57.0%)명의 거리노숙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수급권 확보, 자활근로 연계,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실질적인 주거·경제 상태의 변화를 경험함
 - 2019년 사업에 참여한 378명 중 177명이 노숙상태를 벗어나 제반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았음(주민등록 5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46명, 자활근로 연계 56명, 공공임대주택 연계 25명)
 - 2020년에는 317명 중 226명의 참여자가 복지시스템과 연계됨(주민등록 67명,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보 69명, 자활근로 연계 66명, 공공임대주택 연계 24명)

-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의료지원, 주거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도 밖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거리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음
- 셋째, 제공된 프로그램은 평균 86.6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 출석률은 심리지원 프로그램 89.4%, 교육훈련 프로그램 87.1%, 일자리 프로그램 85.9% 순(평균 87.0%)
 - 만족도는 일자리 프로그램 93.2점, 심리지원 프로그램 86.6점, 교육훈련 프로그램 85.3점(평균 86.6점)
-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환경과 지속 여부가 불투명 했던 정책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짧은 기간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었음
 - 특히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장기노숙인의 높은 참여율은 특기할 만한 사실임. 시설 입소 등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노숙인 사업과 달리 조건 없는 사업 참여가 장기노숙인의 유인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지역 일자리 개발, 지역 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 노숙인 사업의 지역화를 위한 지역 자원 개발은 과제로 남았음
 -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관 차원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업 담당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개발·운영되었음
 - 기관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 체계(MOU, 지속적인 상호 협약 등)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자료의 제약으로 사업 수행 실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음
 - 실적 확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와 행정 서식의 보완이 필요함

IV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

1 사업 효과 분석 개요

- 실적 분석에 이어 본 연구의 핵심 과업인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 분석은 참여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음. 사업 참여에 따른 노숙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함
 - 이를 위해 먼저, 사업 참여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함
 - 사업 참여자에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갖는 의미와 참여 이후 생활 및 태도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함
 - 다음으로, 사업 참여 노숙인과 비참여 노숙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생활패턴과 자립의지의 변화를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음
 - 사업 참여자 FGI는 물론 사업수행기관의 중간관리자와 전담사례관리자 심층인터뷰와 FGI 등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함
- 이에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참여자 FGI 결과와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효과성 분석의 결과로 제시함
 - 이와 함께, 2019년 말 사업 수행기관이 “운영가이드”(2019)의 양식에 따라 자체 시행한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덧붙임

2 사업 참여자 초점집단 인터뷰

1_참여자 초점 집단 인터뷰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자 대상 FGI를 진행하였음
 - 인터뷰의 핵심 내용은 첫째, 거리노숙인에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둘째,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특히 참여자의 심리 변화와 생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참여자의 인식을 토대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FGI에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7명과 참여종료자 11명, 총 18이 참여함
 - 참여자는 조사시점 현재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으로 당사자 동의와 사업수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섭외하였음
 - 참여종료자는 사업 참여 이후 수급권을 확보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기간의 종료로 더 이상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역시 당사자 동의와 사업수행기관의 협조를 얻어 섭외함
 - FGI는 수도권(서울, 수원)과 비수도권(대구, 대전, 부산, 창원), 여성참여(서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2020년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음

<표 IV-1> FGI 참여자 특성

연번	참여기관	참여종료	참여중
1	햇살보금자리	참여자A	참여자B
2	서울노숙인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참여자C	참여자D
3	수원노숙인종합지원센터	참여자E	참여자F
4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참여자G	참여자H
5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참여자I	참여자J
6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참여자K	참여자L
7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참여자M	참여자N
8	창원지역자활센터	참여자O	
9	(사)열린복지 디딤센터	참여자P, Q, R	

2_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

- FGI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전과 사업 참여 후 당사자가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그간의 노숙생활과 사업 참여 이후의 변화,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논의함

○ FGI의 결과는 4개 범주 13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정리함

<표 IV-2> FGI 분석 결과

	하위요인	상위범주
1	변해버린 일상(익숙해진 노숙)	노숙생활
2	창피한 삶	
3	기댈 언덕이 사라짐	
4	무기력한 삶	
5	일상적 수입	사업 참여
6	상담을 통한 마음의 안정	
7	일을 하며 사는 삶	
8	생활 패턴의 변화	변화
9	대인관계의 변화	
10	새로운 출발점	
11	취업	앞으로의 계획
12	더 나은 거주지 마련	
13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	

□ 노숙생활

○ 먼저,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숙생활을 ‘변해버린 일상(익숙해진 노숙)’, ‘창피한 삶’, ‘기댈 언덕이 사라짐’, ‘무기력한 삶’의 4개 하위요인으로 설명함

① 변해버린 일상(익숙해진 노숙)

- 인터뷰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노숙에 적응하게 되었다고 술회함
- 노숙이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변해버린 일상’을 체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숙인들은 삶의 의욕과 목표가 사라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생활을 하게 됨
-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기존에 자신을 묶어매던 규칙과 규율에서 벗어난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감내해야 할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갖게 됨
- 달라진 삶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그 일상에 ‘젖어들면서’ 노숙 전의 삶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됨. 그리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되거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짐

공간이라는 곳이 노숙인에게는 기본 돈이잖아요 2,3만 원 차라리 그 돈이면 밖에 나와서 술 먹죠. 3, 4만 원이란 돈을 하룻밤 자는데 쓸 바에는 내가 신문지 깔고 밖에서 잔다, 그게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저도 그 인식을 깨느라고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 탈피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공간이 생겨도 처음에는 들어갈 엄두가 안나요. 낮에는 술 마시고 저녁에는 아무데서나 자고 이런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데, 공간이 생기면 거기가 감옥이죠. (참여자 A)

그때 당시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자체를 모르고 길거리 생활을 하다보니까 눈뚫을 때 내가 여기서 잤네 할 정도로 제 정신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오래 노숙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 E)

젤 처음에는 사람 피해 다니고 그 다음부터 익숙해져버리는 거죠. 노숙이라는 거 자체가 젤 처음에 1,2년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략) 어느 순간 2,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활 자체에 익숙해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노숙자 오래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탈출하기가 힘든 거죠. (중략) 제 입장에서는 늘 한발짝만 가면 벗어날 수 있었었는데 왜 한발짝도 한발짝이지만 익숙해져버린 거죠. 그 자체에서 다른 길이 있을 거를 알면서도 벗어나려고는 안 하는 거죠. 아예. 이제 그거를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운데 아예 아무도 무관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냥 술 먹는 사람은 술 먹고 있고 술 안 먹더라도 그냥 그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생활 패턴에 빠져버리니까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참여자 N)

이미 몸과 생각 자체가 그 생활에 거리생활에 젖어들었다는 거지요. 이게 일반 생활로 전환이 되면 뭔가 두려움이 앞서는 거지요. 법칙을 따라야 되고 법규를 따라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는 거지요. (참여자 O)

일도 좀 하고 싶었고 센터에 3년 있으면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내 자신도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참여자 G)

왜냐면 몸에 베어가지구요. 뭐 하루 나갔다 보면 우리 일하는 거 세 배, 네 배 버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울리고 인제 안 그래도 게임 좋아서 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따진다면. (참여자 J)

② 창피한 삶

- 인터뷰에 따르면, 거리노숙인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처지와 생활의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함
- 자신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 불편함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는 의미임
- 이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자신이 이러한 부정적 대우를 받는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과 불안함이 반영된 결과임
- 이로 인해 그 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됨
- 이렇게 노숙생활에 적응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은 생활공간, 하루 일과(시간), 외모, 냄새 등 비노숙인의 삶과는 여러 면에서 달라진 자신의 생활을 타인의 불편한 태도와 시선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함

외롭기도 하죠 외로운데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자는 곳은 공원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치 보니까. (참여자 E)

사람들이 씻으려고 해도 씻을 곳이 없잖아요.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하면 막 손짓하고 욕하고 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경찰 부르고 그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여자 F)

솔직하게 좀 비하하는 말로 좀 쓰레기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 좀 더럽다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뭐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참여자 I)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으로 챙겨줄 때 자할 같은 건 공초를 줘요. 사람들 자체가 일에 귀천이 없지만 일 자체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끄럽다. 노숙을 하면서도 공초 줘는 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면 중심지인데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자체를 하면서도 하다가 며칠을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참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참여자 N)

③ 기댈 언덕이 사라짐

- 비노숙인과 노숙인을 가르는 차이점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점임
- 노숙생활을 하기 전에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실제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지만, 노숙을 시작하게 되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마땅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포함함
- 노숙 생활은 공간, 관계의 단절 뿐 아니라 문화, 정보, 사회생활 전반의 단절로 그 범위를 차츰 확장하면서 이후 다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때 상황 해결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됨

그게 일반사람과 노숙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데, 일반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을 하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어디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뭔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제 3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혼자서 일어나기가 진짜 너무 힘이 듭니다. (참여자 O)

노숙생활을 할 때 파출부 일도 했는데 (중략) 옛날에 파출부 댕길 때는 그때는 힘들어도 어디 어디 찾아 댕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참여자 P)

④ 무기력한 삶

- 자신이 어느덧 ‘노숙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노숙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짐
- 공간과 시간, 관계의 균열과 단절, 점점 멀어진 일반적인 삶과의 거리, 이로 인한 불편함과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누군가는 적응하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면서 노숙,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생활을 지속함
- 이렇게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거리노숙인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포기상태, 즉 무기력한 삶을 지속하게 됨

예전에 노숙할 때는 의욕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 그냥 시간은 시간 개념 자체도 없었고.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저도 그 당시에는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애착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다갔다 진짜 배가 폭풍에 흔들리듯이 그런 삶이었고. (참여자 O)

제가 노숙생활 할 적에는 하루하루 의미 없는 생활과 희망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없어지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중략) 일단 워 센터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하루하루 무기력 하게 시간을 버티는 게 하루하루 일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참여자 G)

우선은 밖에 잠을 못자니까 잠 잘 곳이 없으니까 사람이 멍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멍해지니까 삶의 의지를 조금 잃어가는 단계였는데. (중략)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한 달 안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갖지만 한두 달 정도 되면 삶의 의지를 점점 점점 그 포기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음이 처음에는 나왔을 때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점점 점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회한을 느끼면 삶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M)

약간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약간 무기력해지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할머니도 약간 무기력해지셔서 잘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Q)

술도 많이 먹었죠. 술에 찌들어서 일어나면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 (중략) 예전 생각이 나니까 내가 그때 그것을 왜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계속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그 당시는 기분이 잊혀져 버려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참여자 I)

- 공간과 시간, 관계의 오랜 단절로 인해 거리노숙인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품거나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은 차츰 어렵고, 두렵고, 귀찮고 또는 위험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여겨지게 됨
- 또한 거리노숙인은 거주지와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의 대상 밖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낮을 수밖에 없음
- 이렇게 반복적인 상실과 실패, 사회적·제도적 제약을 경험한 거리노숙인이 다시 변화의 기회를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자활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저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한 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호의를 베푸시는지 그런 거를 잘 몰랐고. (참여자 H)

그때 제가 대인기피가 있어서 사람을 피해 다녔었거든요. 노숙을 해도 노숙인들이 모이는 무리가 있고 혼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희망 등대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뭘 하더라도 피해 다녔죠. 사람을. (참여자 N)

그 상황이 되면 누군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지? 그런 느낌이 많아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I)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너무 조건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나 또 요새 사회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참여자 O)

□ 사업 참여

- 사업에 참여한 거리노숙인들은 ‘일상적인 수입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자신이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였음. 이는 거리노숙인이 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그간 기대하지 않았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생활을 지속적으로 체험한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임

① 일상적인 수입원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인 거리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적 수입원’이 됨
-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신이 참여한 노동, 자신이 투여한 시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함
- 무엇보다 무료급식, 일회성 일자리 등 개인적·일시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거리노숙인에게 ‘언제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점은 경제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함

일용직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만, 이 일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되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이것 가지고는 못 살아요. 50만원 받아서 방세 빼고 나면 20만 원으로, 밥도 사먹어야 되고 부족한데, 돈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내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져요. (참여자 B)

일단 수입이죠.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받는다는 그것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관리가 안 되요. 저도 몇 달 동안은 술 먹고 사람들 사주고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 쓰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아끼게 되고 저축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좀 하니깐 좀 작든 크든 벌어서 고시원비도 내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조금은 사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절실하죠. (참여자 R)

아. 처음에는 노숙할 때는 솔직히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챙겨야 되고 그런 것이 막막했는데 특화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급여가 생기잖아요. 급여 생겨서 식사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략)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이러니까 힘들죠. 암만해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참여자 K)

② 상담을 통한 마음의 안정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제공한 프로그램 중 심리지원프로그램이 거리노숙인에게 상당한 지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임
-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웠던 자신감, 인간에 대한 신뢰 등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고 술회함
-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노숙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소통이 주는 위로감을 느낀 참여자가 많았음. 누군가는 들어주길 바랐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쌓아온 세상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도 외면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함
- 특히 지속적인 상담이 사업 참여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음. 상담으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재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자활의지를 키워갈 수 있었음

저한테 처음 다가 온건 의미치료였어요. 의미치료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말하지 못할 상황을 다 할 수 있고 한 시간 정도 듣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의미치료 받고 한신대 가서 강의 듣고 노인복지관 가서 3,4백명 설거지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도 나중에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내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A)

속마음을 누구한테 풀어놓는다는 게 좋았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생님이 이야기 해주시고...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것이라서. (참여자 D)

제가 작년에 심리상담하고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술하고는 일단 멀리하게 된 계기가 심리적인 안정도 있었어요. (중략) 제가 보기에다 굉장히 바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 명 정도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절반 이상은 그래도 아 상담을 잘 받고 왔다,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여자 H)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선생님이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속마음을 저도 모르는 속마음을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당 한 시간씩 그것을 계속하다보니까 두 번가고 세 번가고 네 번가고 이래서 상담이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회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술로 해결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사회적으로 조금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행동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여자 O)

노숙할 때는 사람들을 피했지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같은 노숙자끼리는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 하지 않고 흘러가는 이야기만 하고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하는데 상담사하고 있을 때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나 앞으로 진취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프로그램을 떠나가지고 이 자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이거는. (참여자 N)

제가 사람에게 먼저 말을 안 걸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말도 하게 되고 조금은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피해망상이 있었는데 말도 하고 어울려 다니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구요. 스스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힘든 거 없냐 상담식으로 던지시 던지는 거죠. 먼저 말을 잘 안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제일 크게 바뀐 거 같아요. 첫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여자 N)

아 이 돈 받아도 작은 돈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 그러니까 뭐 너무 좋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자활 한지가 올해 치면 1년째인데 이제 지금 자활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있고 그래서 실은 힘든 일은 사실 못합니다. 왼쪽 팔도 지금 정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자활 프로그램 참여 하면서 심리상담도 받고 도움이 됐습니다.(참여자 H)

이 사업도 그렇지만 같이 하는 상담이런 게 있어요. 여태까지 이야기 못한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조금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깐 마음이 괜찮아 지더라고요. 그것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은 계속 했어요. (참여자 B)

③ 일을 하며 사는 삶

- 한편, 참여자들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함. 이는 일자리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영함
- 많은 거리노숙인이 ‘일’을 ‘자활’과 동일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업의 명칭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반복적인 교육과 용어 사용으로 인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대표적으로는 ‘일’이 ‘자활’로 대리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음
- 사업 참여, 구체적으로는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정서적 변화를 복합적으로 이끈다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 이후 경험한 이러한 생활의 변화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
- 무엇보다 자신도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생김으로써,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됨. 이는 차츰 노숙을 벗어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자립 의지로 발전함
- 그리고 이 변화는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신도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생김으로써 남들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됨. 이는 차츰 노숙을 벗어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자립 의지로 발전함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요. 자활하는 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이제 아침에 출근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나오고자 하니깐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고. (참여자 L)

그 의사선생님이 우울증이 아주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침에 여기 와서 일하고 퇴근하고 가서는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하죠. (참여자 R)

저한테는 자활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중략) 돈도 벌 수 있고 시금시금 모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좀 많이 알고 나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참 좋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참여자 G)

우선 이것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것보다는 근로를 함으로써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근로의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도 좀 청소를 하면서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중략)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좀 다시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M)

또 세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규칙적으로 내 생활패턴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구요. (참여자 N)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거 보고 일도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아 나도 일할 수 있구나, 나도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참여자 Q)

□ 변화

-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생활패턴의 변화’를 경험하고, 차츰 ‘대인관계의 변화’를 체감하게 됨. 변화의 형태는 개인마다 다르고 복잡하지만, 좀처럼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됐던 ‘무기력한’ 노숙인의 삶에 관심과 기대와 희망이 생기면서 거리노숙인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됨

① 생활 패턴의 변화

- 그저 덧없이 보내곤 했던 하루에 ‘약속된 일과’가 생기면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시작됨
- 이러한 변화는 출퇴근 등 시간의 변화 뿐 아니라 공간의 변화를 동반함. 많은 참여자들이 동선이 확장되는 경험과 함께 사업수행 기관의 연계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함

지금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니까 몸이 옛날보다 그래서 영양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술은 지금은 안 먹는 상태예요. LH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잔 먹고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제를 하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몸도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제가 아침에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은 아침 7시가 되면 제 나름대로 먹고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참여자 A)

습관이 이제 처음에는 귀찮고 그렇지만 일단은 꾸준히 제시간에 일어나고 제시간에 자야 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돼요. 일용직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만, 이 일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되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중략) 변화의 계기는 생활패턴이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노숙을 벗어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B)

교육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루가 계획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때 되면 밥 찾아서 밥 먹고 이런 것 외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활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을 제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제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E)

이제 아침에 출근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나오고자 하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고 (중략)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보통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참여자 L)

또 세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규칙적으로 내 생활 패턴이 갖춰지는 거죠. (참여자 N)

그리고 자신감 같은 게 생겼어요.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처음 보는 거는 되게 무서워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것도 좀 사라지고 혼자서 뭔가 어디를 가고 그런 것들이 인제 좀 괜찮아졌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참여자 Q)

내 모습이 내 옛날의 과거의 모습보다 현재의 모습이 더 좋아졌다는 모습. 좋아졌다는 거 그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좋아졌구요. 특히 방을 얻었다는 거 그게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참여자 J)

② 대인관계의 변화

- 이 과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여러 형태로 발현됨.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대개 외면, 회피 등 부정적·폐쇄적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사업 참여 이후 지인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거나, 용모를 다듬는 데에 신경을 쓰는 등의 변화를 보임. 동료노숙인의 사업 참여 여부에 관심을 갖거나, 타인을 도우는 등 인간에 대한 신뢰를 차츰 회복해 감
- 그간 언급을 회피하거나 단절됐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게 된 것도 커다란 의식의 변화로 볼 수 있음

이것도 처음에는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신임이 약속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내 별은 말에 책임지고 저 사람은 믿어도 돼, 그래서 그냥 코로나 걸리면 걸려라 그런 취지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A)

내가 돈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누구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피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하잖아요. 빌려주거나 밥을 사 줘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피해요. 내가 버니까 먼저 밥 먹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없을 때는 누구 만나자고 못해요. 그렇잖아요. (중략)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참여자 B)

술 먹을 돈으로 차라리 옷을 하나 사 입자. 좀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다니는 게 낫잖아요. 저 처분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술 먹을 돈으로 옷을 하나 사자, 이렇게 되었어요. (참여자 C)

삶의 태도보다 행동, 밖에서 제가 사람 피해 다니고 웃는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웃고 있을 때도, 내 스스로 웃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외양적인 모습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여자 N)

왜냐하면 밖에 있다 보면 어울리는 사람만 어울리고 노숙할 때는 막 술에 찌들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활동범위가 없거든요. 근처에서만 있고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I)

만나고 싶은 가족은 이제 남동생 조카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참여자 J)

그렇죠. 그런 바람(가족을 만나고 싶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술은 또 멀리해야 되겠지요. (참여자 H)

목표는 있죠. 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언젠가 제 형제들과 다시 한 번 만나는 것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안에서의 뭔가 제 새로운 시작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제 안에 있어요. (참여자 E)

그리고 친누나한테 가보고 싶은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딴지는 아는데 가려고 해도 조카들이 있으니까 뭘 사들고 가야하잖아요. 가족이라곤 누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은 보고 싶어요. 사진만 보고 있으니까. (참여자 F)

③ 새로운 출발점

- 이렇게 사업 참여를 통해 모은 돈으로 방을 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를 거리노숙생활을 벗어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기 시작함

단돈 만 원짜리 천 원짜리 한 장 없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특화자활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6,7만 원 정도 손에 쥐어지더라고요. 처음 그것 받았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버니까 된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란 생각이 딱 들고요. (참여자 A)

영화를 본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그런 것들 할 기회가 없잖아요. 가족이나 연인이 있어야 가지, 노숙인들끼리는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자활참여 하면서 당일치기로 가지만 선생님들이랑 영화를 보고 미술관을 가는 그런 것을 하며 노숙 때랑은 다른 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해보고 틀러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나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참여자 B)

참여하기 전에는 목표도 없었어요. 거리생활 하면서. 특화자활 하면서는 목표가 생겼어요. 특활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끝나면 자활로 간다는 목표를 정해놨구요. (참여자 D)

그리고 우선 이것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참여자 M)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거 보고 일도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아 나도 일할 수 있구나, 나도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참여자 Q)

그러면서 이제 나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구요. 스스로. (참여자 N)

아 저는 오늘 많이 이렇게 말하게 되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Q)

근데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져 계시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되게 환경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보고 들은 게 다 살아온 게 다르니까. 되게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되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만 개념이 인식이 되어서 근데 이렇게 소일거리도 하고 돈도 조금이라도 벌고 이러면서 자기도 사회에 섞일 수 있구나 나도 일할 수 있구나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게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한발짝 내딛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Q)

□ 앞으로의 계획

- 노숙을 벗어나고자하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거리노숙인이 생각하는 미래는 ‘취업’과 ‘더 나은 주거지의 마련’으로 집약됨

① 취업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시간이나 급여 면에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의 이동을 희망함
-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조금씩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나름의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은 취업을 해야 돼요. 우선은 더 좋게 말하면 월급이 조금 많은 데로 가는 게 취업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돈을 계속 모아서. 앞으로 계획은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그러가지고 1종 보통을 따가지고 우선 운전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산에서 일하는 조경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자격증이나 그 둘 중에 하나 따가지고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자 M)

그러니까 지금 경비 교육이나 내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맞는 직업을 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조건부 수급이나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자립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 센터에서 말을 하면 경비교육이나 운전면허증 교육을 알아가지고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월급 좀 받아가지고 일단은 혼자 일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참여자 N)

② 더 나은 거주지 마련

- 이러한 바람은 더 이상 노숙이 아닌 자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화됨

하루에 두세 시간이든 일단 낮에 일을 하니까 사람 패턴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돈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받으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월세를 살다가도 LH주택에 들어가 살면 좋잖아요. (참여자 B)

아까 이야기 했지만 아파트요. 아파트,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지금 목표 1순위입니다. (참여자 L)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이겠죠. 집을 조금 좋은 데 방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참여자 K)

제 목표는 LH주택에 공공주택에 거기서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략) 공간의 의미라 하는 것은 나한테는 편안함,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공간, 그런 게 나한테는 의미입니다. 노숙생활 할 적에는 바깥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만의 공간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쓸 수 있는 공간 그게 나한테는 의미입니다. (참여자 G)

③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

- 이렇게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면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거리노숙인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음
 - 특히 2020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수행기관 뿐 아니라 거리노숙인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가중됨. 이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음

특화 자활사업은 만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에 너무 절어 있어서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조금 시간을 주더라도 기다려주는 게. 한 번에 바꾸라고 하면 노숙하는 사람한테 내일부터 술 안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을 주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바뀌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인데도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방뻐다는 사람, 술 마시겠다는 사람이 생겨 제가 보기 안 좋거든요. 벌써 다들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C)

제일 문제가요, 일이 중단이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중략) 이제 내 행세를 하면서 계속 발전도 하고 이게 또 중단 된단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여자 L)

네 연장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Q)

지금은 아주 대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처음에 11개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런 게 생기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참여자 R)

한 1년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중략) 단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참여자 I)

이것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시고 특화자활이 계속 1,2년 할 게 아니고 조금 계속 유지하면 좋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또 이런 것 하다가 그만 두는 거 이 자체가 없어지거나 내가 앞으로 노숙생활을 계속 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짧은 소견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G)

이제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시니까 조금 뭐 나중에 참여하실 분들이 여럿 계신데 이제 9월달부터 자활 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좀 실망하는 지원자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참여자 H)

자활 6개월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뭐하지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은 거? (중략) 근데 현실 아까 말했지만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짧다는 개념? 기간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시간을 확충을 해주든가. (참여자 N)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이 프로그램이 꾸준히 계속 있는 것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기간을 1년을 잡든 3년을 잡든 앞에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빨리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밖에 몸이 힘들어도 열심히 생활하며 사는 분들이 빠른 기간 안에 그럴 수도 있고, 3년이 지나도 똑같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참여자 H)

자립할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이제 그 기간 안에 자격증도 따고 싶으면 따고. (중략) 왜냐면 이게 9월달이 끝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나가서 많거든요. 나가보면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노숙하고 대전역 가가지고 아는 사람하고 술먹고 하니까요.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픈데. 좀 연장 좀 해줬으면 좋겠고... (중략) 이게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노숙을 할 거 같아서요. 자활 교육을 좀 받고 자립하고 이제 시간도 좀 주겠고 프로그램이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J)

3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

1_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를 설계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거리노숙인의 생활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실험집단)과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거리노숙인(통제집단)의 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설문 기간: 2020년 9월 3일(수) ~ 9월 15일(화)
- 설문방법: 기관 담당자가 직접 대면 조사하여 기입
- 설문 대상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기관 참여노숙인과 해당지역 비참여노숙인
 - 참여노숙인과 비참여노숙인을 1:1의 비율로 할당함
 - 단,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참여노숙인에 한함. 비참여 노숙인의 경우 일시보호시설이나 쉼터 이용자가 아닌 단순방문자 등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정함
- 설문구성
 - 사업 수행기관 중간관리자와 사례관리자 FGI와 심층인터뷰, 사업 참여 노숙인 FGI를 통해 사업 참여노숙인의 주요 변화를 파악하였음. 이를 기초로 거리노숙인 생활 변화 척도를 개발하고, 아래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함

<표 IV-3>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수	내용
1	1	[최근 한 달 간] 평소 하는 일과 장소(시간대별)
2	19	거리노숙인 생활 변화 척도(5점 만점) 일상생활(9), 자기관리(4), 인간관계(2), 자립의지(4)
	2	자립계획(한 달 후, 1년 후)
3	1	돈의 사용처(범주형)
4	1	자립예상 기간(범주형)
5	1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범주형)
6	1	사업 지속참여 이유(범주형)
7	1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서술형)
8	1	사업 참여 이후 느끼는 자신의 변화(범주형)
9	1	제안사항(서술형)
10	15	노숙기간, 사업참여유형, 참여기간,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주로 생활하는 곳, 주로 자는 곳, 거주비 지원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만성질환, 알코올의존, 기타), 경제상황(수급여부, 신용상태)
합계	44	

- 설문지는 사업수행기관의 협조를 얻어 배포했으며, 회수된 설문 267부 중 불성실 응답지 14부를 제외한 253부를 분석에 사용함

2_응답자 특성

- 설문 응답자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123명(48.6%), 비참여자 130명(51.4%)으로 1 대 1.06의 비율을 보임. 이 중 참여자 123명은 2020년 6월 말 당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노숙인(151명)의 81.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기록함
- 인구학적 특성
 -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의 경우 조사대상을 본 사업 참여자와 유사한 비율로 할당함. 그 결과 응답자 성별은 남성 221명(87.4%), 여성 32명(12.6%), 연령은 50대 85명(37.0%), 40대 72명(31.3)으로 40-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많았음

○ 주로 자는 곳

- 사업참여 노숙인의 90.4%가 거리가 아닌 쪽방/고시원(37.6%), 여관(29.6%), 일시보호시설(20.0%), 쉼터(1.6%) 등에서 잠을 청하는 것과 달리, 비참여 노숙인은 63.8%가 거리에서 밤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남. 일시보호시설 14.6%, 쪽방/고시원 12.6%의 순임

○ 건강상태

-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사람이 많았음. 응답자 249명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3점(보통)이라 응답한 사람이 62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5점이 61명(24.5%)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임.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참여자 3.19점, 비참여자 3.23점임
- 만성질환, 알코올의존증 또한 없다는 응답자가 있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음.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는 75.5%, 알코올의존증이 없는 응답자는 82.9%임

○ 노숙기간

- 한편, 노숙기간 5년이 넘는 장기노숙인이 72명(33.3%)으로 가장 많고, 1년 이하가 68명(31.3%), 1-2년 이하가 29명(13.4%), 2-3년 이하가 26명(12.0%)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참여자의 경우 1년 이하의 거리노숙인이 38명(32.8%)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노숙기간 5년을 초과한 노숙인도 35명(30.2%)에 이름

○ 기타 응답자 특성은 <표 IV-4>에 정리함

<표 IV-4>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합계		123(48.6%)	130(51.4%)	253(100.0%)
성별	남성	109(88.6%)	112(86.2%)	221(87.4%)
	여성	14(11.4%)	18(13.8%)	32(12.6%)
연령	20대	0(0.0%)	6(5.1%)	6(2.6%)
	30대	15(13.4%)	9(7.6%)	24(10.4%)
	40대	37(33.0%)	35(29.7%)	72(31.3%)
	50대	41(36.6%)	44(37.3%)	85(37.0%)
	60대	17(15.2%)	20(16.9%)	37(16.1%)
	70대	2(1.8%)	4(3.4%)	6(2.6%)
학력	무학	2(1.7%)	5(3.9%)	7(2.8%)
	초졸	14(11.8%)	12(9.4%)	26(10.6%)
	중졸	25(21.0%)	29(22.8%)	54(22.0%)
	고졸	67(56.3%)	65(51.2%)	132(53.7%)
	대졸이상	11(9.2%)	16(12.6%)	27(11.0%)
주로 자는곳	거리노숙	12(9.6%)	81(63.8%)	93(36.9%)
	일시보호시설	25(20.0%)	18(14.2%)	43(17.1%)
	노숙인쉼터	2(1.6%)	2(1.6%)	4(1.6%)
	쪽방/고시원	47(37.6%)	16(12.6%)	63(25.0%)
	여관	37(29.6%)	4(3.1%)	41(16.3%)
	기타	2(1.6%)	6(4.7%)	8(3.2%)
거주비 지원여부	지원함	39(34.8%)	20(18.7%)	59(26.9%)
	지원없음	73(65.2%)	87(81.3%)	160(73.1%)
주관적 건강상태 (3.24점)	1(건강하지 않다)	12(9.9%)	19(14.8%)	31(12.4%)
	2	25(20.7%)	26(20.3%)	51(20.5%)
	3	38(31.4%)	24(18.8%)	62(24.9%)
	4	20(16.5%)	24(18.8%)	44(17.7%)
	5(건강하다)	26(21.5%)	35(27.3%)	61(24.5%)
만성질환 여부	있음	32(26.2%)	27(21.1%)	59(23.6%)
	없음	90(73.8%)	101(81.9%)	191(76.4%)
알코올의존 여부	있음	17(14.2%)	20(16.0%)	37(15.1%)
	없음	103(85.8%)	105(84.0%)	208(84.9%)
수급 여부	수급	31(25.6%)	13(10.4%)	44(17.9%)
	비수급	76(62.8%)	110(88.0%)	186(75.6%)
	신청 후 대기	14(11.6%)	2(1.6%)	16(6.5%)
신용상태	양호	41(35.3%)	47(40.5%)	88(37.6%)
	불량	70(60.3%)	64(55.26%)	134(57.8%)
	회생진행 중	5(4.3%)	5(4.3%)	10(4.3%)
노숙기간	1년 이하	38(32.8%)	30(29.7%)	68(31.3%)
	1년~2년 이하	20(17.2%)	9(8.9%)	29(13.4%)
	2년~3년 이하	9(7.8%)	17(16.8%)	26(12.0%)
	3~4년 이하	9(7.8%)	4(4.0%)	13(6.0%)
	4~5년 이하	5(4.3%)	4(4.0%)	9(4.1%)
	5년 초과	35(30.2%)	37(36.6%)	72(33.2%)

사례별 결측치에는 차이가 있음

3_거리노숙인의 일과

- 먼저 거리노숙인의 일과를 평일과 휴일(주말)로 나누어 시간대 별로 조사함. 최근 한 달 간의 생활 패턴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다양한 필요와 원인, 상황이 존재하지만 응답자들의 답변만으로 이를 심층 분석하기는 어려움.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들의 생활 패턴을 행위별로 구분하여 유목화 하였음
 - 응답자들의 행위는 ‘잠’, ‘일’, ‘식사’, ‘여가활동’, ‘그냥 있음’ 등 11가지 범주로 분류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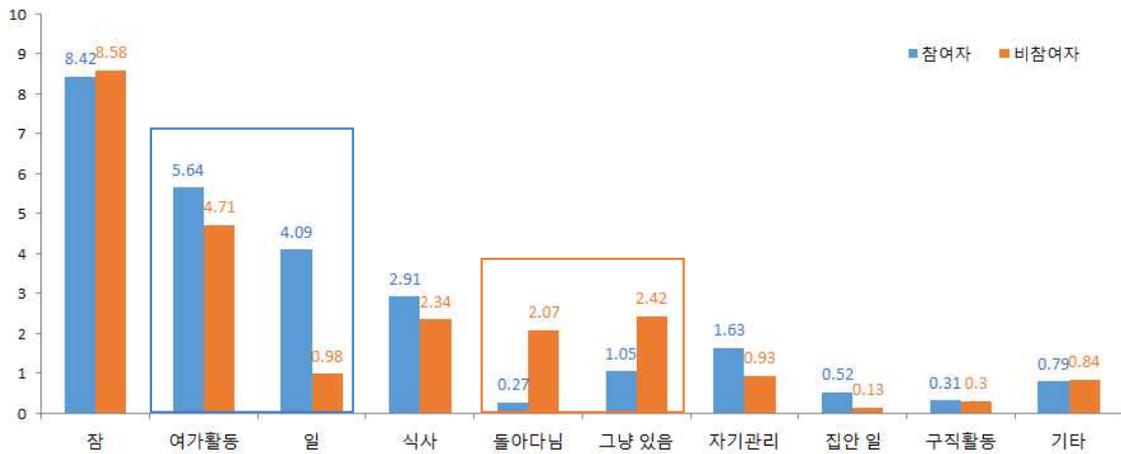
<표 IV-5> 거리노숙인의 일과 분류

구분		내용
1	잠	취침, 응급잠자리 이용, 더부살이, 낮잠, 주변정리(노숙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잠
2	일	일함, 근무, 특화 자활사업참여, 프로그램 참여, 작업장, 직장, 자활 근무, 자활사업 참여, 일자리 참여, 청소사업, 희망연계프로그램, 공공근로, 코레일 일자리사업, 코레일 집결지 도착, 일용직일, 소일거리, 아르바이트, 식당일, 식당보조업무, 식당알바(서빙), 주방일, 고물수집, 공병수거, 폐지수집, 출근, 퇴근, 출근 준비
3	식사	식사, 무료급식, 라면, 간식, 끼니해결, 컵밥
4	여가활동	자유시간, 걸어 다니며 여가활동, 여가시간, 외출, 낚시, 도서관, 등산, 산책, 자전거타기, 걸기, 쇼핑, PC방, 영화보기, 만화보기, 독서, 신문구독, 글 적음, 뜨개질, 그림그리기, 음악듣기, 커피 마심, 인터넷 검색, 핸드폰게임, TV시청, 유튜브 시청, 휴대폰 사용, 개인 업무, 개인시간, 개인 볼 일, 성경책읽기, 복음성가, 찬송가 듣기, 기도, 봉사, 휴식, 쉬기, 자율 일상 친구하고 놀기, 지인들과 잡담, 친구 약속, 친구 만남, 지인 만남, 데이트
5	그냥 있음	그냥 있음, 휴대폰 충전, 시간을 보냄, 거주, 휴무
6	돌아다님	계속 걸음, 배회, 주변 걸기, 거리방향, 돌아다님, 여기저기 왔다갔다 함
7	자기관리	운동, 씻기(샤워, 세면, 세안, 목욕, 세수, 씻음), 병원진료, 학습활동(학원, 공부), 개인정비, 기상
8	구직활동	구직활동, 구직부탁, 인력사무소 방문
9	종교활동	교회, 예배
10	집안일	빨래, 청소, 세탁, 가사일, 정리정돈, 물품구입, 장보기
11	기타	음주(술 마심, 반주), 퇴실, 이동(센터 복귀, 도착, 식사를 위해 돌아다님) 취침 준비(잠자리 물색, 입소, 응급잠자리 입실, 잠자리 신청)

- 거리노숙인들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50시간을 수면에 사용하고, 5.19시간을 여가생활에 사용함. 식사 2.63 시간, 일하는 시간은 2.58시간, 자기관리시간 1.29시간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면시간은 참여자 8.42시간, 비참여자 8.58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구직활동에 들이는 시간도 참여자 0.31시간, 비참여자 0.30시간으로 차이가 없었음. 다만 사업 참여자가 하루 4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비참여자 .098시간), 비참여자의 구직환경이나 근로의욕에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음
- 평일,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생활 차이가 두드러진 범주는 ‘일’, ‘돌아다님’, ‘여가활동’, ‘그냥 있음’임
 - 일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사업 참여자 4.09시간, 비참여자 0.98시간으로 3.11시간의 차이를 보임. 11가지 생활 범주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행위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패턴 차이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음
 - (목적 없이) 돌아다니거나 배회하는 시간도 다음 순으로 차이를 보임. 참여자는 0.27시간, 비참여자는 2.07시간으로 1.8시간의 시간차를 보임
 - 하루 중 그냥 보내는 시간의 경우 비참여자(2.42시간)가 참여자(1.05시간)보다 많은 반면, 여가활동은 참여자가(5.64시간)가 비참여자(4.71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됨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할 때, 참여자가 ‘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비참여자는 ‘그냥 있음’, ‘돌아다님’에 들이는 시간이 많았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증가 및 잠자리 변화가 ‘여가활동’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비참여자의 경우 PC방, TV시청, 스마트폰과 같은 주로 비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지내는 반면, 참여자의 경우 비활동적 여가 외에도 낚시, 자전거타기, 등산, 봉사활동, 자전거 타기, 친구하고 놀기 등 활동적인 여가생활과 그림 그리기, 글짓기, 뜨개질 등 생산적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정한 소득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다양하게 누리고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휴일(주말)의 경우 ‘일’, ‘여가활동’의 시간 변화가 두드러졌음

- 참여자의 휴일은 평일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줄고, ‘여가활동’, ‘그냥 있음’, ‘집안 일’의 순으로 남은 시간을 활용함
- 비참여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평일에 비해 ‘여가활동’이 늘고, ‘일’하는 시간과 ‘돌아다니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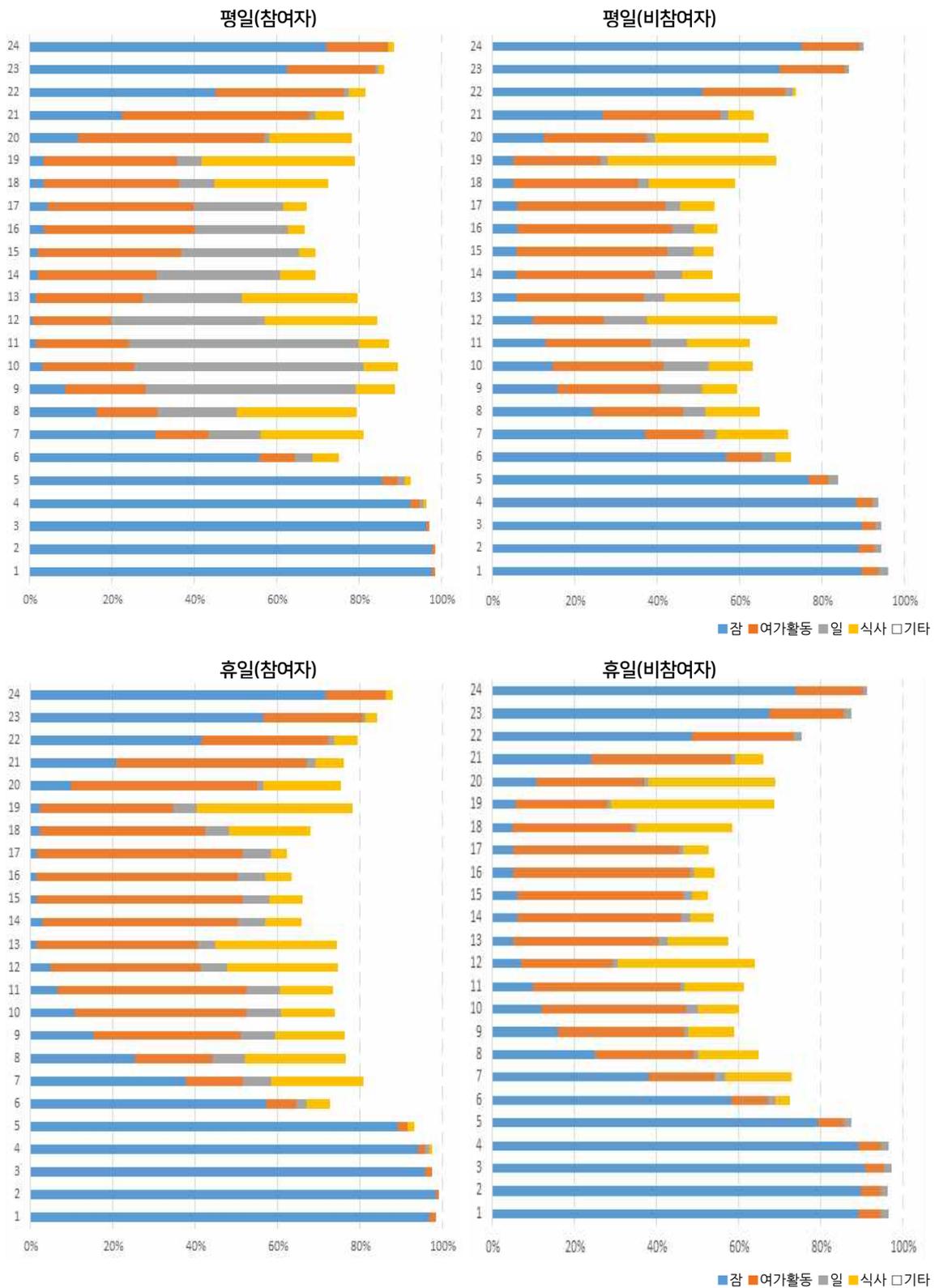


[그림 IV-1] 행위별 평균 사용시간(평일)

<표 IV-6> 행위별 평균 사용시간

	평일		휴일(주말)	
	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비참여자
잠	8.42	8.58	8.48	8.50
여가활동	5.64	4.71	7.30	5.43
일	4.09	0.98	1.02	0.36
식사	2.91	2.34	2.94	2.31
자기관리	1.63	0.93	1.67	0.93
그냥 있음	1.05	2.42	1.72	2.50
기타	0.79	0.84	0.58	0.72
집안 일	0.52	0.13	0.85	0.32
구직활동	0.31	0.30	0.22	0.24
돌아다니	0.27	2.07	0.32	1.80
종교활동	-	-	0.06	0.06

- [그림 IV-2]는 11가지 활동 범주 중 응답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잠’, ‘여가활동’, ‘일’, ‘식사’ 네 가지 활동과 ‘기타’로 재구성하여 시간대별로 배열한 것으로, 평일과 휴일 응답자의 패턴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생활 패턴 차이는 휴일보다 평일에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잠’의 경우, 평균 수면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참여자의 오전·오후 시간대 수면 비율이 참여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일’이 참여자와 비참여자 생활패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여가활동’의 경우 참여자의 평일과 주말 차이가 뚜렷한데, 이는 ‘일’하는 시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임. 참여자의 일하는 시간이 평일과 휴일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주말 사업 참여자의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남
- 참여자의 경우 네 가지 주요 활동이 하루 시간 활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 평일을 예로 볼 때, 참여자의 주요 활동 비율은 82.2%, 그래프의 공백을 차지하는 기타의 비율은 17.8%로, 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패턴이 기본적인 수면과 식사시간 외에 여가활동과 일을 중심으로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음. 참여자의 시간 활용 비율은 ‘잠’ 32.9%, ‘여가활동’ 22.0%, ‘일’ 16.0%, ‘식사’ 11.4%의 순임
 - 이에 비해 비참여자의 경우 주요 네 가지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1.3%, 그래프의 공백을 차지하는 기타의 비율은 평일 28.7%로 참여자와 패턴 차이를 보임. 비참여자의 시간 활용 비율은 ‘잠’ 36.8%, ‘여가생활’ 20.2%, ‘그냥 있음’ 10.4%, ‘식사’ 10.0%의 순임. ‘일’은 하루 24시간 중 0.98시간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함



[그림 IV-2] 시간대별 주요 활동

4_생활 변화 분석

□ 평소 생활 모습(최근 한달간)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생활 차이를 비교함. 두 집단의 비교가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를 증명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중간관리자·전담사례관리자 FGI와 심층인터뷰, 사업 참여자 FGI를 통해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사업 효과 검증에 필요한 거리노숙인 생활변화 척도로 ‘일상생활’, ‘자기관리’, ‘인간관계’, ‘자립의지’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총 21개 항목을 도출함. <표 IV-7>은 이중 비교 검증을 위해 5점 척도로 구성된 19개 항목의 측정 결과임(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Cronbach's $\alpha=.815$)
- 거리노숙인 생활 변화 척도 측정 결과, 참여자 3.35($SD=.476$), 비참여자 2.82($SD=.556$)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t=8.173, p<.5$).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로 거리노숙인의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자립의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상생활의 경우 참여자 3.31($SD=.562$), 비참여자 2.83($SD=.577$)으로 참여자의 생활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남($t=6.736, p<.5$)
 - 자기관리는 참여자 3.79($SD=.668$), 비참여자 3.29($SD=.814$)로 참여자의 생활이 비참여자보다 긍정적으로 확인됨($t=5.404, p<.5$)
 - 인간관계는 참여자 3.26($SD=.831$), 비참여자 2.76($SD=1.040$)으로 이 또한 참여자의 생활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측정되었음($t=4.261, p<.5$)
 - 자립의지는 참여자 3.04($SD=.829$), 비참여자 2.42($SD=.813$)로 조사된 항목 중 점수는 가장 낮지만 가장 큰 변화가 확인된 지수로, 참여자의 자립의지가 비참여자의 자립의지보다 높게 나타남($t=6.048, p<.5$)

○ 일상생활

- 일상생활 9개 항목 모두에서 사업 참여자가 긍정적인 생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
- 비참여자와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돈을 벌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97)로 사업 참여 결과가 반영됨. 이어 ‘술이 줄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한다’가 같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69). 사업 참여 이후 음주습관과 구매 활동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음
- 사업 참여자의 일상생활 지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술이 줄었다’(3.71)임. ‘다치거나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역코딩)’ 3.62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한다’ 3.59의 순으로 나타남

○ 자기관리

- 자기관리 지수 또한 4개 항목 모두에서 참여자의 긍정적인 생활변화가 확인됨
- 비참여자와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내일 할 일이 있으면 과음하지 않는다’(+.58)로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포착된 음주습관의 변화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정기적인 일거리가 생긴 이후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 음주습관과 시간관리에 신경을 쓰는 변화가 일어남.
- ‘거주지(자는 곳)를 청소하고 관리한다’(+.49),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47),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47)의 순으로 비참여자와의 생활 차이가 드러남
- 사업 참여자의 자기관리 지수 항목별 순위는 ‘내일 할 일이 있으면 과음하지 않는다’ 4.25, ‘거주지(자는 곳)를 청소하고 관리한다’ 3.84,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듬는다’ 3.83,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는 3.27의 순임

○ 인간관계

- 인간관계 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업 참여 이후 긍정적 변화로 검증됨
-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에 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58),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또한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39)

○ 자립의지는 4개 지수 중 점수는 가장 낮지만, 사업 참여 이후 가장 높은 변화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62)

-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차이가 큰 항목은 ‘돈을 모으고 있다’(+.99),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60)로, ‘최근 한달 간 구직활동을 했다’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임. ‘최근 한 달 간 구직활동을 했다’가 다음 순임(+.48)
- 참여자의 자립의지의 항목별 순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3.33, ‘돈을 모으고 있다’ 3.15, ‘최근 한 달 간 구직활동을 했다’ 2.92의 순임

<표 IV-7> 최근 한달간 생활 모습 차이 검증(참여/비참여)

	구분	N	평균(SD)	t(df)
일상생활	참여	125	3.31(0.562)	6.736* (254)
	비참여	131	2.83(0.577)	
자기관리	참여	125	3.79(0.668)	5.404* (248.496)
	비참여	131	3.29(0.814)	
인간관계	참여	125	3.26(0.831)	4.261* (246.54)
	비참여	131	2.76(1.040)	
자립의지	참여	125	3.04(0.829)	6.048* (253)
	비참여	130	2.42(0.813)	
합계	참여	125	3.35(0.476)	8.173 (251.118)
	비참여	131	2.83(0.556)	

*p < .05

<표 IV-8>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참여/비참여)

구분	질문	참여 (n=125)	비참여 (n=131)
A 일상 생활	① 밥을 잘 챙겨먹는다.	3.47(0.915)	3.02(1.143)
	②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2.96(0.982)	2.38(1.048)
	③ 다치거나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	3.62(1.058)	3.41(1.142)
	④ 숙면을 취한다.	3.22(1.094)	3.02(1.234)
	⑤ 술이 줄었다.	3.71(1.394)	3.02(1.508)
	⑥ 틈틈이 소일거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48(1.214)	2.37(1.197)
	⑦ 돈을 벌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3.28(1.263)	2.31(1.182)
	⑧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3.50(1.018)	3.10(1.167)
	⑨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한다.	3.59(0.971)	2.90(1.158)
	소계	3.31(0.562)	2.83(0.577)
B 자기 관리	①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듬는다.	3.83(0.853)	3.40(1.111)
	② 거주지(자는 곳)를 청소하고 관리한다.	3.84(0.850)	3.35(1.102)
	③ 내일 할 일이 있으면 과음하지 않는다.	4.25(0.888)	3.67(1.357)
	④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	3.27(1.143)	2.81(1.158)
	소계	3.79(0.668)	3.29(0.814)
C 인간 관계	①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3.26(1.031)	2.87(1.173)
	②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	3.25(1.021)	2.67(1.168)
	소계	3.26(0.831)	2.75(1.040)
D 자립 의지	① 돈을 모으고 있다.	3.15(1.092)	2.16(1.044)
	②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2.72(1.218)	2.12(1.047)
	③ 최근 한 달 간 구직활동을 했다.	2.92(1.240)	2.44(1.138)
	④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3.33(1.076)	2.92(1.291)
	소계	3.04(0.829)	2.42(0.813)
합계		3.35(0.476)	2.82(0.556)

주. A-②, A-③은 역코딩 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1-5점)

□ 생활 변화 영향 요인 검증

- 노숙인의 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 참여 여부’인 것으로 확인됨. 응답자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한 사람이 일상생활, 자기관리, 인간관계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가 거리노숙인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연령’과 ‘노숙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과가 연령, 노숙기간과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나이가 들었거나 장기노숙인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도, 참여의 효과도 보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초기의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임
 - 고령자와 장기노숙인의 높은 사업 참여율이 이를 반증하기도 하였음(2019년 3년 이상 노숙인은 54.0%, 2020년 52.4%)
 - 응답자 중 3년 이상 장기노숙인 비율 53.4%(사업 참여자 42.3%)

<표 IV-9> 거리노숙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성별(여성 vs 남성)	.268(.167)	.115
연령	-.006(.004)	-.116
학력(중졸이하 vs 고졸이상)	-.049(.079)	-.043
만성질환(없음 vs 있음)	-.092(.094)	-.069
알코올의존(없음 vs 있음)	-.202(.104)	-.134
노숙기간	.000(.001)	-.061
사업 참여 여부(비참여 vs 참여)	.386(.075)	.359*
(상수)	3.160(.287)	
n	179	
수정된 R ² (R ²)	.149(.182)	
모델적합도	F=5.453(df=7, 171)	

* $p < .05$

□ 참여종료자의 생활 변화

- 한편, 사업 참여가 종료된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여종료자는 프로그램의 종료, 수급권 확보(자활근로 연계) 등을 이유로 조사 시점 당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함
 -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종료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 중인 거리노숙인보다는 낮은 생활 변화 수준을 보임
 - 이는 사업 참여종료자에 대한 후속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거리노숙인의 생활 패턴이 다시 기존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함
- 거리노숙인 생활 변화 척도 측정 결과를 참여 종료자와 참여자, 비참여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참여종료자 3.24($SD=.500$), 참여자 3.38($SD=.464$), 비참여자 2.82($SD=.55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t=34.191, p<.5$). 사업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에 비해 긍정적인 생활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그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참여종료자는 일상생활, 자기관리, 인간관계, 자립의지 등 모든 지수에서 비참여 자보다 높은 생활 점수를 보임
 - 반면, 참여 중인 거리노숙인에 비하면 더 낮은 점수를 보이는 데, 이는 사업 참여 이후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가 사업 종료 후 변화의 수준이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 참여 종료자가 참여 중인 노숙인보다 더 높게 측정된 항목은 일상생활 지수 중 ‘숙면을 취한다’, ‘술이 줄었다’, ‘틈틈이 소일거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자립의지 지수 중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가지 항목에 그쳤음
 - 프로그램 진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사례관리, 자활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안정적·지속적 접근이 필요함

<표 IV-10> 최근 한 달 간 생활 모습 차이 검증(참여종료/참여/비참여)

구분		N	평균(SD)	t(df)	사후검증
일상생활	참여종료	32	3.27(0.500)	22.683* (2, 253)	비참여 < 참여종료, 참여
	참여	93	3.32(0.583)		
	비참여	131	2.83(0.577)		
자기관리	참여종료	32	3.53(0.838)	17.387* (2,253)	비참여, 참여종료<참여
	참여	93	3.88(0.576)		
	비참여	131	3.29(0.814)		
인간관계	참여종료	32	3.18(0.939)	9.084* (2, 253)	비참여<참여종료 ,참여
	참여	93	3.28(0.795)		
	비참여	131	2.75(1.040)		
자립의지	참여종료	32	2.98(0.810)	18.354* (2,252)	비참여<참여종료 ,참여
	참여	93	3.06(0.839)		
	비참여	130	2.42(0.813)		
합계	참여종료	32	3.24(0.500)	34.191* (2,253)	비참여<참여종료, 참여
	참여	93	3.38(0.464)		
	비참여	131	2.82(0.556)		

*p < .05; **사후검증방법 Tukey HSDa,b

<표 IV-11>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참여종료/참여/비참여)

단위: 점수(SD)

구분	질문	참여		비참여
		참여종료	참여중	
A 일상 생활	① 밥을 잘 챙겨먹는다.	3.47(0.842)	3.47(0.943)	3.02(1.143)
	②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2.78(0.974)	3.02(0.982)	2.38(1.048)
	③ 다치거나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	3.50(1.163)	3.66(1.021)	3.41(1.142)
	④ 숙면을 취한다.	3.34(1.096)	3.17(1.096)	3.02(1.234)
	⑤ 술이 줄었다.	3.78(1.450)	3.69(1.384)	3.02(1.508)
	⑥ 틈틈이 소일거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63(1.289)	2.43(1.190)	2.37(1.197)
	⑦ 돈을 벌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3.32(1.194)	3.26(1.291)	2.31(1.182)
	⑧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3.37(1.066)	3.54(1.003)	3.10(1.167)
	⑨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한다.	3.45(0.995)	3.63(0.964)	2.90(1.158)
		소계	3.27(0.500)	3.32(0.533)
B 자기 관리	①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듬는다.	3.63(0.907)	3.90(0.826)	3.40(1.111)
	② 거주지(자는 곳)를 청소하고 관리한다.	3.50(1.016)	3.96(0.755)	3.35(1.102)
	③ 내일 할 일이 있으면 과음하지 않는다.	4.10(1.185)	4.30(0.767)	3.67(1.357)
	④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	2.94(1.076)	3.39(1.148)	2.81(1.158)
		소계	3.53(0.333)	3.88(0.576)
C 인간 관계	①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3.13(1.129)	3.30(0.998)	2.87(1.173)
	②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	3.23(1.023)	3.26(1.026)	2.67(1.168)
		소계	3.18(0.939)	3.28(0.795)
D 자립 의지	① 돈을 모으고 있다.	2.90(1.155)	3.23(1.065)	2.16(1.044)
	②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2.88(1.185)	2.66(1.231)	2.12(1.047)
	③ 최근 한 달 간 구직활동을 했다.	2.84(1.167)	2.95(1.270)	2.44(1.138)
	④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3.26(0.999)	3.36(1.105)	2.92(1.291)
		소계	2.98(0.810)	3.06(0.839)
합계		3.24(0.500)	3.38(0.464)	2.82(0.556)

주. A-②, A-③은 역코딩 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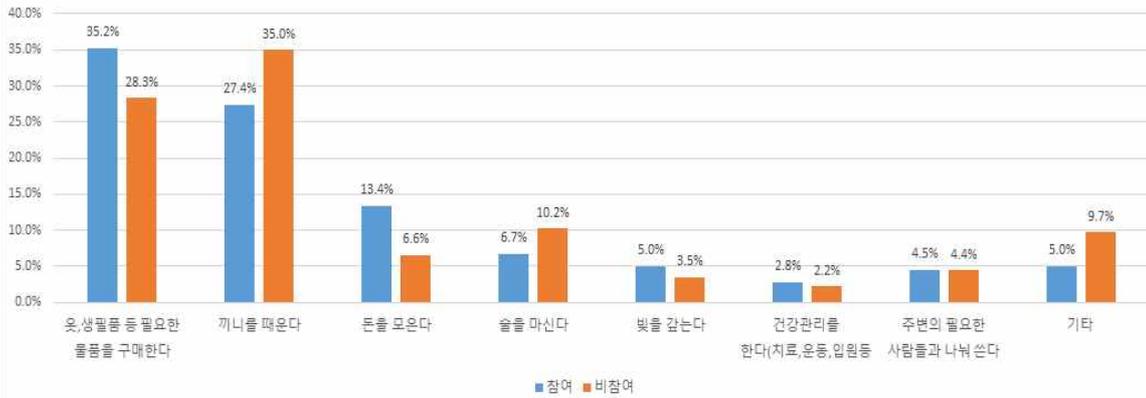
□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립예상 시기

-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측면의 생활 변화 외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 돈의 사용처, 미래에 대한 계획, 자립 예상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비참여자에 비해 참여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 다소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지만,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거나 응답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거리노숙인의 생활과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참여 자체로 거리노숙인의 자립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 보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 할 것임
 - 앞서 사업 참여종료자의 생활변화 측정에서 사업 참여가 중단종료될 경우 생활변화의 정도가 다시 감소함을 확인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음
 -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가 재활, 탈노숙, 자립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및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중층적인 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돈의 사용처

- 평소(최근) 돈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그림 IV-3], <표 IV-12, 13>과 같음
 - 참여자의 경우 ‘옷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35.2%, ‘끼니를 때운다’ 27.4%, ‘돈을 모은다’ 13.4% 순임
 - 비참여자의 경우 ‘끼니를 때운다’ 35.0%, ‘옷,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8.3%, ‘술을 마신다’ 10.2%의 순임
 - 비참여자의 경우 참여자에 비해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끼니 문제 해결과 필요 물품 구매 외에 참여자가 주로 돈을 모으는 반면, 비참여자는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많았음

단위: %



[그림 IV-3] 평소 돈이 생기면 사용하는 곳

<표 IV-12> 평소 돈이 생기면 사용하는 곳(참여)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옷,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5(27.5%)	38(43.2%)	63(35.2%)
끼니를 때운다	35(38.5%)	14(15.9%)	49(27.4%)
돈을 모은다	11(12.1%)	13(14.8%)	24(13.4%)
술을 마신다	6(6.6%)	6(6.8%)	12(6.7%)
기타	6(6.6%)	3(3.4%)	9(5.0%)
빚을 갚는다	3(3.3%)	6(6.8%)	9(5.0%)
건강관리를 한다(치료, 운동, 입원 등)	4(4.4%)	1(1.1%)	5(2.8%)
주변의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 쓴다	1(1.1%)	7(8.0%)	8(4.5%)
합계	91(100.0%)	88(100.0%)	179(100.0%)

<표 IV-13> 평소 돈이 생기면 사용하는 곳(비참여)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끼니를 때운다	58(45.7%)	21(21.2%)	79(35.0%)
옷,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2(17.3%)	42(42.4%)	64(28.3%)
술을 마신다	15(11.8%)	8(8.1%)	23(10.2%)
기타	11(8.7%)	11(11.1%)	22(9.7%)
돈을 모은다	8(6.3%)	7(7.1%)	15(6.6%)
주변의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 쓴다	5(3.9%)	5(5.1%)	10(4.4%)
빚을 갚는다	6(4.7%)	2(2.0%)	8(3.5%)
건강관리를 한다(치료, 운동, 입원 등)	2(1.6%)	3(3.0%)	5(2.2%)
합계	127(100.0%)	99(100.0%)	226(100.0%)

미래에 대한 계획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는 한 달 혹은 1년 후의 계획을 갖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여자는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다소 많은 반면, 비참여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음
 - 한 달 후 계획의 유무는 참여자의 경우 ‘있다’ 52.4%, ‘없다’ 47.6%인 반면, 비참여자는 ‘있다’ 45.3%, ‘없다’ 54.7%임
 - 1년 후 계획의 유무는 참여자의 경우 ‘있다’ 52.0%, ‘없다’ 48.0%로 ‘있다’가 다소 많았음. 비참여자의 경우 ‘있다’ 43.0%, ‘없다’ 57%로, ‘없다’의 비율이 더 높아짐
- 한편, 참여종료자와 참여자, 비참여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참여종료자의 계획 유무는 ‘있다’ 보다 ‘없다’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참여자와 참여종료자의 답변이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14> 앞으로의 계획 유무(참여/비참여)

단위: 명(%)

구분	한 달 후 계획(n=252)		1년 후 계획(n=251)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참여	65(52.4%)	59(47.6%)	64(52.0%)	59(48.0%)
비참여	58(45.3%)	70(54.7%)	55(43.0%)	73(57.0%)
합계	123(48.8%)	129(51.2%)	119(47.4%)	132(52.6%)

<표 IV-15> 앞으로의 계획 유무(참여종료/참여/비참여)

단위: 명(%)

구분	한 달 후 계획(n=252)		1년 후 계획(n=251)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참여종료	11(34.4%)	21(65.6%)	15(46.9%)	17(53.1%)
참여	54(58.7%)	38(41.3%)	49(53.8%)	42(46.2%)
비참여	58(45.3%)	70(54.7%)	55(43.0%)	73(57.0%)
합계	123(48.8%)	129(51.2%)	119(47.4%)	132(52.6%)

자립 예상 기간

- 자립 예상 기간은 공통적으로 ‘1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참여자의 경우 ‘1년 이내’ 33.6%, ‘1-2년 이내’ 26.4%, ‘2-4년 이내’ 17.6%,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이 16.0%의 순으로, 60%의 응답자가 2년 이내 자립을 예상함
 - 비참여자의 경우, ‘1년 이내’ 40.3%, ‘1-2년 이내’ 27.1%,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이 15.5%로, 2년 이내 자립을 예상한 응답자가 67.4%에 달함
- 한편, 참여종료자의 자립 예상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년 이내’ 28.1%,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이 25.0%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수급권 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 종료 경험이 현실 인식, 자립·자활기준의 변화, 수급 유지 경향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
- 자립기간은 자활의지, 사업유인과 연결될 수 있는 변수이지만, 본 설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음

<표 IV-16> 자립 예상 기간(참여/비참여)

단위: 명(%)

구분	1년 이내	1~2년 이내	2~4년 이내	5년 이상	사실상 어려움	합계
참여	42(33.6%)	33(26.4%)	22(17.6%)	8(6.4%)	20(16.0%)	125(100.0%)
비참여	52(40.3%)	35(27.1%)	12(9.3%)	10(7.8%)	20(15.5%)	129(100.0%)

<표 IV-17> 자립 예상 기간(참여종료/참여/비참여)

단위: 명(%)

구분	1년 이내	1~2년 이내	2~4년 이내	5년 이상	사실상 어려움	합계
참여종료	9(28.1%)	6(18.8%)	6(18.8%)	3(9.4%)	8(25.0%)	32(100.0%)
참여	33(35.5%)	27(29.0%)	16(17.2%)	5(5.4%)	12(12.9%)	93(100.0%)
비참여	52(40.3%)	35(27.1%)	12(9.3%)	10(7.8%)	20(15.5%)	129(100.0%)

□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 거리노숙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거지 확보(24.5%), 일자리 확보(22.1%), 먹는 문제 해결(8.7%) 순으로 나타남(전체 순위)
-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도 공통적으로 일자리 확보와 주거지 확보가 우선순위로 제기됨
- 주거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점은 거리노숙인 주거지원정책이 보다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시설 입소 외에 거리노숙인이 적정한 거주환경을 갖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4]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전체)

<표 IV-18>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전체)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주거지 확보	64(25.0%)	57(24.1%)	121(24.5%)
일자리 확보	50(19.5%)	59(24.9%)	109(22.1%)
먹는 문제 해결	30(11.7%)	13(5.5%)	43(8.7%)
신체건강 회복	22(8.6%)	15(6.3%)	37(7.5%)
안정적인 잠자리 확보	17(6.6%)	17(7.2%)	34(6.9%)
신용 회복	18(7.0%)	16(6.8%)	34(6.9%)
빚 청산	16(6.3%)	14(5.9%)	30(6.1%)
생활비 마련	11(4.3%)	13(5.5%)	24(4.9%)
정신건강 회복	8(3.1%)	9(3.8%)	17(3.4%)
수급권 확보	6(2.3%)	8(3.4%)	14(2.8%)
술을 줄이거나 끊기	6(2.3%)	6(2.5%)	12(2.4%)
기타	4(1.6%)	4(1.7%)	8(1.6%)
불규칙한 생활습관 개선	4(1.6%)	3(1.3%)	7(1.4%)
자격증/졸업장 취득	-(-)	3(1.3%)	3(0.6%)
합계	91(100.0%)	88(100.0%)	179(100.0%)

<표 IV-19>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참여)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일자리 확보	25(27.5%)	23(26.1%)	48(26.8%)
주거지 확보	20(22.0%)	22(25.0%)	42(23.5%)
먹는 문제 해결	8(8.8%)	4(4.5%)	12(6.7%)
신용 회복	6(6.6%)	7(8.0%)	13(7.3%)
빚 청산	6(6.6%)	7(8.0%)	13(7.3%)
신체건강 회복	6(6.6%)	5(5.7%)	11(6.1%)
안정적인 잠자리 확보	5(5.5%)	3(3.4%)	8(4.5%)
생활비 마련	3(3.3%)	3(3.4%)	6(3.4%)
정신건강 회복	3(3.3%)	3(3.4%)	6(3.4%)
수급권 확보	3(3.3%)	4(4.5%)	7(3.9%)
술을 줄이거나 끊기	2(2.2%)	3(3.4%)	5(2.8%)
불규칙한 생활습관 개선	2(2.2%)	0(0.0%)	2(1.1%)
기타	2(2.2%)	2(2.3%)	4(2.2%)
자격증/졸업장 취득	-(-)	2(2.3%)	2(1.1%)
합계	91(100.0%)	88(100.0%)	179(100.0%)

<표 IV-20>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비참여)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주거지 확보	35(27.8%)	27(23.7%)	62(25.8%)
일자리 확보	18(14.3%)	27(23.7%)	45(18.8%)
먹는 문제 해결	15(11.9%)	7(6.1%)	22(9.2%)
안정적인 잠자리 확보	11(8.7%)	9(7.9%)	20(8.3%)
신체건강 회복	10(7.9%)	9(7.9%)	19(7.9%)
신용 회복	12(9.5%)	4(3.5%)	16(6.7%)
생활비 마련	7(5.6%)	9(7.9%)	16(6.7%)
빚 청산	7(5.6%)	6(5.3%)	13(5.4%)
정신건강 회복	4(3.2%)	4(3.5%)	8(3.3%)
수급권 확보	2(1.6%)	4(3.5%)	6(2.5%)
술을 줄이거나 끊기	2(1.6%)	3(2.6%)	5(2.1%)
기타	2(1.6%)	2(1.8%)	4(1.7%)
불규칙한 생활습관 개선	1(0.8%)	3(2.6%)	4(1.7%)
자격증/졸업장 취득	0(0.0%)	0(0.0%)	0(0.0%)
합계	126(100.0%)	114(100.0%)	240(100.0%)

5_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 한편, 사업 참여자에 한해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앞서 실시한 참여자 FGI의 조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임. 이에 여기에서는 간략히 그 결과값을 제시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한 이유

- 그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한 이유는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해서’ 28.0%,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18.4%, ‘기타’ 13.6% 순으로 나타남
 - 거리노숙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하게 반영됨. 특히 당장의 경제적 필요보다 일상적 수입원에 대한 욕구와 탈노숙 의지가 사업 참여를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함

<표 IV-2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한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해서	35(28.0%)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23(18.4%)
기타	17(13.6%)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서	16(12.8%)
당장 돈이 필요해서	16(12.8%)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해서	6(4.8%)
딱히 할 일이 없어서	5(4.0%)
기관 담당자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줘서	5(4.0%)
별다른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2(1.6%)
합계	125(100.0%)

□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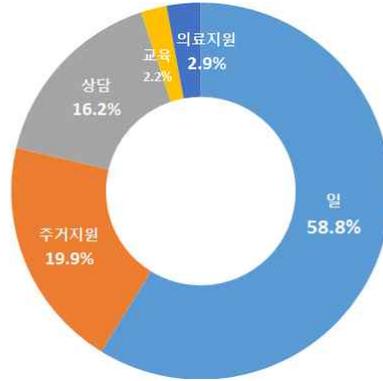
-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일자리 제공이 80명(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원 27명(19.9%), 상담 프로그램 22명(16.2%)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필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결과라 할 것임

<표 IV-22>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빈도(%)
일자리 제공	80(58.8%)
주거지원	27(19.9%)
상담 프로그램	22(16.2%)
의료지원	4(2.9%)
교육 프로그램	3(2.2%)
합계	116(100.0%)

[그림 IV-5]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 사업 참여 이후 달라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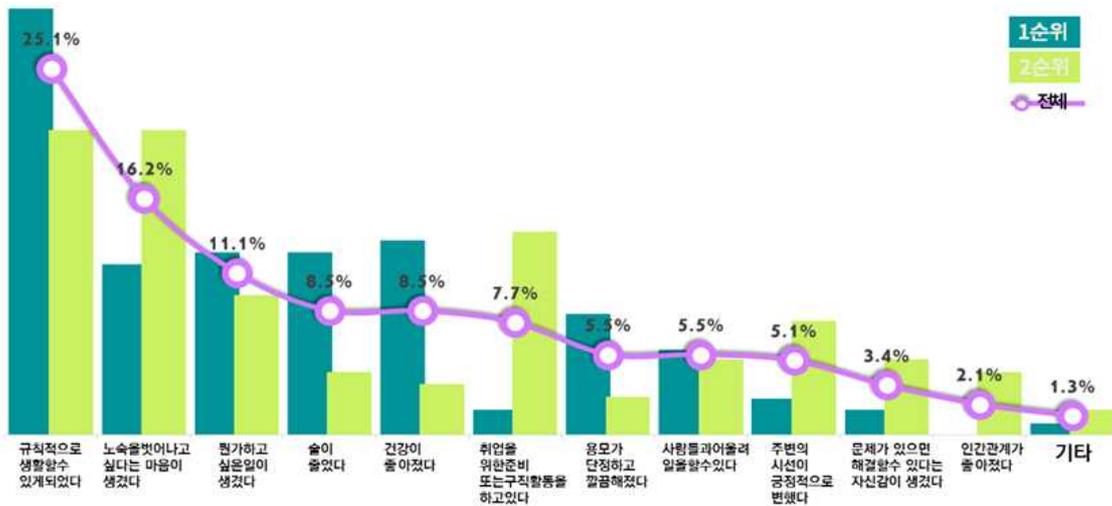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이후 느끼는 변화”를 묻는 질문(다중응답)에 대한 응답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68명(12.5%), ‘노숙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65명(12.0%),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졌다’ 52명(9.6%),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51명(9.4%),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할 수 있다’ 51명(9.4%)으로 나타남
 - 이는 사업 참여자가 느낀 모든 변화를 순서 없이 답변한 다중응답 결과로, 사업 참여자의 변화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표 IV-23> 사업 참여 이후 변화(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N(%)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68(12.5%)
노숙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65(12.0%)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졌다	52(9.6%)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51(9.4%)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할 수 있다	51(9.4%)
건강이 좋아졌다	50(9.2%)
문제가 있으면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45(8.3%)
주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41(7.6%)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38(7.0%)
술이 줄었다	37(6.8%)
취업을 위한 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34(6.3%)
기타	11(2.0%)
합계	543(100.0%)

- 1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가 35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아졌다’ 16명(13.3%),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와 ‘술이 줄었다’가 각각 15명(12.5%)의 순이었음
- 1, 2 순위 응답에 대한 종합 결과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가 59명(25.1%), ‘노숙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가 38명(16.2%),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가 26명(11.1%)으로, 출퇴근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경험하면서 차츰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립의지를 키우게 되는 것으로 보임



[그림 IV-6] 사업 참여 이후 변화(우선순위)

<표 IV-24> 사업 참여 이후 변화(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35(29.2%)	24(20.9%)	59(25.1%)
노숙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14(11.7%)	24(20.9%)	38(16.2%)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15(12.5%)	11(9.6%)	26(11.1%)
술이 줄었다	15(12.5%)	5(4.3%)	20(8.5%)
건강이 좋아졌다	16(13.3%)	4(3.5%)	20(8.5%)
취업을 위한 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1.7%)	16(13.9%)	18(7.7%)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졌다	10(8.3%)	3(2.6%)	13(5.5%)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할 수 있다	7(5.8%)	6(5.2%)	13(5.5%)
주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3(2.5%)	9(7.8%)	12(5.1%)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2(1.7%)	6(5.2%)	8(3.4%)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0(0%)	5(4.3%)	5(2.1%)
기타	1(0.8%)	2(1.7%)	3(1.3%)
합계	120(100.0%)	115(100.0%)	235(100.0%)

- 본 사업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전후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감과 자존감에 대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함. 2019년 사전사후조사 재분석 결과를 아래에 간략히 제시함
- 2019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조사 결과, 거리노숙인들은 사업 참여 이후 우울감은 낮아지고, 자존감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 프로그램 참여 후 우울감은 2.40점(5점 만점)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2.51점)에 비해 0.11점 낮아짐($t=2.191; p < .05$).
 - 프로그램 참여 후 자존감은 참여 전 자존감 2.66점(4점 만점)에 비해 0.06점 높아진 2.72점으로 나타남($t=-2.055; p < .05$).

표. 2019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사전사후조사 결과(우울감 및 자존감)

구분	사전 우울감	사후 우울감	사전 자존감	사후 자존감
평균	2.51	2.40	2.66	2.72
SD	0.673		0.342	
t(df)	2.191(174)*		-2.055(173)*	
N	175		174	

* $p < .05$, 우울감은 5점 만점, 자존감은 4점 만점

- 우울감 측정을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중 우울 증상의 척도를 사용함. 총 13개의 문항 중 선행연구(남기철, 2000; 신원우, 2003)에서 조사된 바 있는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한 12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음
 - SCL-90-R은 심리적 이상증상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Derogatis 등에 의해 1997년에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임.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함(사전우울감 Cronbach's $\alpha=0.921$, 사후우울감 Cronbach's $\alpha=0.941$)

우울감

- 2019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전 우울감은 5점 만점에 2.51점 (SD=.784), 사후 우울감은 2.40(SD=.824)점으로 분석됨
 - 사업 참여 이후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동일한 척도와 문항수로 우울감을 조사한 남기철(2000)의 연구 결과인 3.02점, 정원오 외(2014)의 분석 결과인 2.73점에 비해 낮고, 신원우(2003)의 2.21점보다는 높은 수준임

자존감

- 2019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전 자존감은 4점 만점 2.64점 (SD=.442), 사후 자존감은 2.72점(SD=.452)으로 확인됨
 - 사업 참여 이후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동일한 척도와 문항수로 자존감을 측정 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임
 - 정원오 등(2014)의 연구 결과는 2.57점(SD=.415), 중·노년 남성 노숙인 대상으로 조사한 신지숙 등(2010)의 결과는 2.2점(SD=.390), 실직 노숙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김현미 등(2002)의 결과는 2.372점(SD=.378)임

-
-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한국판으로 표준화시킨 척도를 사용함
 - 이 척도는 긍정형과 부정형이 혼합된 10개 문항으로 구성됨.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함(사전 자존감 Cronbach's $\alpha=0.821$, 사후 자존감 Cronbach's $\alpha=0.829$)

4 소결

- 사업 실적에 이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분석은 사업 참여 거리노숙인의 생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음.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시도함
- 먼저, 사업 참여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에 참여한 거리노숙인들은 ‘일상적인 수입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자신이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였음. 이는 거리노숙인이 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삶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고, 탈노숙을 계획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첫째,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에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일상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이는 당장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넘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라 할 것임
 - 둘째, 거리노숙인들은 정서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사업 참여 의지를 더욱 다지는 것으로 보임. 특히 지속적인 상담이 노숙인들의 심리적 안정 뿐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크고작은 변화에 긍정적·발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지함
 - 셋째, 참여자들은 특히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음.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생김으로써,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됨. 이는 차츰 노숙을 벗어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자립 의지로 발전함
 - 초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던 거리노숙인들은 ‘생활 패턴의 변화’와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탈노숙을 희망하게 됨. 이러한 이들에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 첫째, 거리노숙인에게 약속된 일과가 생기면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시작됨. 이는 출퇴근 등 시간의 변화 뿐 아니라 공간의 변화를 동반함. 많은 참여자들이 동선이 확장되는 경험과 함께 사업 수행기관의 연계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음
 - 둘째, 이 과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여러 형태로 발현됨. 타인에 대한 태도가 외면, 회피 등 부정적·폐쇄적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사업 참여 이후 자신의 용모를 다듬거나 지인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등의 변화를 보임. 동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단절됐던 인간관계에 대한 회복을 희망하게 됨
 - 셋째, 이렇게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차츰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거리노숙생활을 벗어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기 시작함
 - 이렇게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와 함께 심리지원·교육 프로그램, 주거·의료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거리노숙인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 효과성 검증의 핵심 방법론으로 참여자 비참여자 비교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거리노숙인 생활 변화 척도 측정 결과, 사업 참여자는 일상생활, 자리관리, 인간관계, 자립의지 등 측정한 모든 항목에서 비참여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생활변화 척도 점수는 참여자 3.35, 비참여자 2.82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점수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사업 참여로 거리노숙인의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자립의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노숙인의 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 참여 여부’인 것으로 확인됨.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가 거리노숙인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이와 관련하여 ‘연령’과 ‘노숙기간’의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연령과 노숙기간에 상관없이 많은 노숙인들이 사업에 참여했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이는 거리노숙인 지원 정책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함. 노숙의 원인과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생활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만, 사업 종료 후 변화의 수준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사업 참여 종료자에 대한 후속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거리노숙인의 생활 패턴이 다시 기존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함.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 후속 사례관리, 자활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회복을 견인하는 안정적·지속적 접근이 필요함
 - 다섯째, ‘주거지 확보’와 ‘일자리 확보’가 거리노숙인의 생활 향상에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거지에 대한 거리노숙인들의 높은 욕구는 시설 입소 중심의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 이상과 같은 결과는, “일=소득”이라는 공식을 넘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거리노숙인의 탈노숙과 자립의지를 북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거리노숙인에게 ‘일’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속된 일과, 규칙적인 생활 등 생활 패턴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거리노숙인들이 탈노숙을 꿈꾸는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하였음
 - 특히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의료·주거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음
 - 즉 이 사업이 거리노숙인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주거지 확보, 수급권 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은 통합사례관리의 효과라 할 것임

V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

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의의

1_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격과 특징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 성격으로 함
 - 첫째, 거리노숙인 사업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그간 일시적 보호에 머물렀던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함
 - 입소, 주소지 확보 등의 자격 요건 없이 거리노숙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을 지님
 - 거리노숙인의 만성화 해소를 위해 시설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둘째, 보건복지부 사업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노숙인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리노숙인 통합지원사업임
 - 일자리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의료, 주거 등 복지자원과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합사례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즉, 일시적 소득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거리노숙인의 일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

- 셋째, 지역주도형 사업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노숙인 사업의 지역화를 추구함
 -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지역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설계함
 - 이는 거리노숙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전제로 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거리노숙인이 시설 입소 등의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상적인’ 통합지원사업으로서, 기존의 노숙인 사업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님

2_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과와 의의

- 보건복지부는 거리노숙인 만성화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지원사업으로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고안하고,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코로나19 등 여러 환경적 제약과 정책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III, IV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대 이상의 실적과 성과를 보였음
 - 높은 참여율과 낮은 이탈률, 특히 장기거리노숙인의 높은 참여율
 -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거주지 마련 등의 탈노숙 효과
 - 그밖에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 참여 노숙인들의 생활 패턴 및 자립의지 변화 등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무엇보다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장기거리노숙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할 것임
 - 그간 거리노숙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부각된 반면, 노숙의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개입의 방법이나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그리 강조되지 않았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거리노숙인 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표 V-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

기간: 2019. 7. - 2020. 6.

구분	내용
참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참여: 목표 대비 달성률 2019년 206.6%, 2020년 17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95명: 2019년 378명, 2020년 317명 사업 참여 지속율 2019년 71.2%, 2020년 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탈률 2019년 15.7%, 2020년 6.7% 장기노숙인의 높은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노숙인 2019년 73.0%, 2020년 85.5% - 3년 이상 노숙인 2019년 54.0%, 2020년 52.4%
복지 연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77명(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확보 50명, 수급권 확보 46명, 자활근로 연계 56명, 공공임대주택 연계 25명 2020년 226명(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확보 67명, 수급권 확보 69명, 자활근로 연계 66명, 공공임대주택 연계 24명
프로그램 출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출석률 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프로그램 85.9%, 심리지원 프로그램 89.4%, 교육훈련 프로그램 87.1%
프로그램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만족도 86.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프로그램 93.2점, 심리지원 프로그램 86.6점, 교육훈련 프로그램 85.3점
생활 변화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3.35점 > 비참여자 2.8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자리관리, 인간관계, 자립의지 등 모든 항목에서 참여자의 생활점수 높음 노숙인의 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 참여 여부” 참여자 3.38점 > 참여종료자 3.24점 > 비참여자 2.8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 후 생활 변화의 수준 감소 ⇒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후속 관리 필요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의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첫째, 시설 중심 보호 체계 밖에 존재하던 거리노숙인의 안전망을 마련함
 - 기존의 노숙인 복지체계는 일상적인 거주지를 확보한 노숙인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포괄해 옴. 즉, 거리노숙인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음
 -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바깥에 있었던 거리노숙인을 사회복지의 시스템 안으로 포용한 혁신적인 의미를 지님

- 이는 다른 한편, 사회복지시스템이 작동하는 장이 ‘시설’에서 ‘거리’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설 입소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노숙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숙인 복지영역을 시설에서 거리로 확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셋째,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집단적 보호에서 개인별 사례관리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노숙 원인, 개인의 정서적·신체적 건강과 근로 역량 등이 고려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접근과 함께 집중사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도 집단적 개입보다는 개인 또는 소그룹별 개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

-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
 - 첫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맞춤형 자활사업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함
 - 둘째, 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
 -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하고자 하였음. 지역 주도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여 사업의 안착에 기여하고자 함

1_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거리노숙인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참여 보장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시설 중심 지원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리노숙인의 만성화 해소를 위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함
 - 시설 입소 등의 조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자활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여 참여수당을 지급함
 - 이렇게 거리노숙인의 ‘참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시하는 것은 이 사업이 기존의 자활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것임

○ 이를 감안할 때, 이 사업의 목적 달성과 안착을 위해서는 거리노숙인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거리노숙인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참여 기간의 제한이 없는 일상적인 지원사업**으로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제도 간의 정합성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참여 기간을 보장하고, 재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기간: 최대 60개월(근로유지형의 경우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 참여기간: 3년+재연장 3년

II-1. 자활근로사업(운영)

1. 기본방향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20 자활사업 안내(1)》.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11. 직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 대상자(훈련장애인)

- 훈련장애인은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훈련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제4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전담사례관리사 기본 배치

- 시장의 일용직 일자리나 여타의 공공 일자리사업과 달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일자리 뿐 아니라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거리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함
 - 이 사업은 내용적 측면에서 단순한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이에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한 개인별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20명 당 1명으로 조건부 배치하고 있는 **전담사례관리사의 기본 배치**를 제안함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사업 참여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문역량을 갖춘 담당자의 배치가 필요함(정규직)
- 재노숙 방지를 위해 **사업 참여 종료 노숙인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 분석 과정에서 사업 참여종료자에 대한 후속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사업 참여종료자의 생활변화 측정 결과, 사업 참여 이후 거리노숙인의 생활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만, 사업 종료 후 변화의 수준이 다시 감소함을 확인함
 - 참여자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음주, 자활근로 참여, 주거 유지 상황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고용-주거-의료를 통합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일자리), 주거, 의료를 통합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사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구체적인 자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수적 과업이 아닌 기본 과업으로 세팅되어야 함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절반이 넘는 참여자들이 주민등록 확보, 수급권 확보 및 자활근로 연계,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의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일자리와 정서지원·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자활 지

원에 기관의 역량을 투입했기 때문임

- 이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사항으로, 사업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스크리닝과 함께, 주거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회복에서 자활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임

○ 특히 '주거 지원'은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에 있어 필수적인 지원사항**이라 할 것임

- 시설 입소가 아닌 거리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거리노숙인의 탈노숙 촉진을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임시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유연화(우선순위 적용) 하는 등 거리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 사업 수행기관의 상담 기능 강화 및 슈퍼비전 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해 일자리와 프로그램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개인별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는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도 연결되는 사항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역량이 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함
 - 전담사례관리사의 기본 배치와 함께 **기관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결합·발휘될 수 있도록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서 '상담'은 정서적 회복을 꾀할 뿐 아니라, 특화 사업 참여를 지속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 참여 이후 자신의 변화를 보다 선명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자극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자활의지를 북돋우는 데 상담이 효과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임
 -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에 있어,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노숙인 사업에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의 개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정신보건상담사가 기본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됨

- 정서지원서비스는 노숙인 뿐 아니라 최근 취약계층 복지 전반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인가구의 증가, 특히 중장년 독거가구의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지원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임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지역사회 노숙인 복지의 기본사업으로 안착시킬 경우 정신보건상담사의 기본 배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을 고려한 상향적 일자리 개발

- 일자리 사업의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향적 일자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근로 능력이 취약하고 일에 대한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거리청소와 같은 단순노동, 봉투접기, 박스만들기 등의 임가공 작업이 노숙인 일자리의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외에도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근로 능력과 자립의 지에 따라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2_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

- 지역주도형 사업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지향을 담고 있지만, 실제 사업 수행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음
 - 지역주도형 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도, 목표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단일한 지표로 지역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 모델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 성과 측정 관행이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도형 사업의 지속성이 쉽게 위협받기도 함
 - 이에 지역의 상황에 걸맞은 사업 모델이 안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 자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 기반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현장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면서 지나치게 짧게 설정됐던 시범사업 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으나, 사업 수행 기간 내내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였음
 - 이에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개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 안정성이 전제될 때 수행 가능한 과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님
 - 즉, 기관의 장기적 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이 전개되기보다는 담당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됨
- 지역주도형 사업은 ‘지역에 맡겨진 사업’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과 지역주체의 사업 개발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작동해야 온전한 추진이 가능함
 - 사업 수행기관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한 균형 지원

- 사업수행 기관들이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지원기관의 역할로 꼽은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나타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지방정부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계된 이유는 지역사회의 준비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거리노숙인 사업의 지역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임
 -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지역은 자원, 인력, 복지자원 연계 등의 제반 측면에서 비교적 자원이 풍부한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이에, 사업의 정착을 위해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 과업으로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한 균형 지원이 도출되었음
 - 지역의 사업 수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의 의제에 대해 정책당국과 지원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 제시
 - 필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거리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거리노숙인의 점진적 회복을 지원하는 단계별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거리노숙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상향적 프로그램 개발로 거리노숙인의 단절 없는 사업 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둘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진 지원
 - 지역에서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파견 및 순회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 셋째, 공공기관을 활용한 노숙인 일자리 발굴 지원
 - 일자리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과제로 남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직접적인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노숙인의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그 대상이 노숙인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산림청, 공원관리공단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노숙인 맞춤형 일 자리를 개발하여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기관의 수요 또한 높게 나타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능력 뿐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태도,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량 등을 높이는 주기적 교육이 필요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전담 인력을 포함하여 기관 내 협력이 필요한 관계 인력의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인적자원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수행에 있어 지원체계의 역할은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평가보다 사례관리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그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지역별 시범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 수행기관 업무 지원과 성과 측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갖는 의미와 현재의 상태를 고려할 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니터링 하는 데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 기관 모니터링이 기관에 대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제도 개선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 자문단 구성, 사례관리 연구단 운영 등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 이와 함께 거리노숙인의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함. 무엇보다 **거리노숙인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생활 변화가 재할, 탈노숙, 자립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경로와 변수가 존재함. 거리노숙인의 발생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자활의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 그간 노숙인 사업은 시설노숙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관한 연구, 거리노숙인의 노숙 원인 및 특성별 자활 연구 등 **다양한 사례 연구가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과정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개별 기관의 역량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워 중앙지원기관의 과업으로 부여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거리노숙인 자활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 및 기본 프로그램 개발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한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사업 기관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안 모색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발생 시 사업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프로그램의 진행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온라인·비대면 교육, 개인별·소그룹별 프로그램 등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제공해야 함

□ 표준 가이드북 제작

-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배포된 “운영가이드”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상의 수행 지침에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보완과 개편이 필요함
 - 시범사업의 경험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서류를 필요에 맞게 개선하고,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이드북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위상과 성격, 관련 제도와의 관계,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 사업 수행기관의 필수 과업 범위와 자율사업의 범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이 선명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1. 사업 운영상의 개선방향

구분	내용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참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연장 및 참여자의 재참여 보장 • 참여 제한 없는 단계적 상향 프로그램 설계로 점진적 회복 지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상향 조정 및 4대 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기초수급 수준 유지
사업 수행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례관리자 기본 배치(정규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안정성 확보 • 행정절차(서류)의 간소화 • 코로나19로 인한 진행 기준 확립

표 2.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구분	내용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사례관리 능력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에 대한 이해 • 참여자 인권 존중 및 권익 보장 • 참여자와의 관계(라포) 형성, 친화력, 수용성 •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인내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지원체계(고용·주거·의료) 연계 및 협업 역량 •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역량 • 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역량

표 3.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지원과제

구분		내용
일자리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공원·건물 청소 등 단순노동 쇼핑백 접기, 단순 조립 등 임가공 사업 취약계층 돌봄, 이동지원, 가사지원, 도시락 제작 및 식사배달, 주거지역 단순 소수리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
	근로 능력 향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의 근로 능력과 자립의지를 고려한 상향적 일자리 개발 지원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학원 연계 자격증 과정 실습 등 단계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신건강센터 연계 교육 및 정신건강관리사업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 취미, 여행 프로그램 금전관리·재무교육, 신용회복 프로그램 스마트 폰 활용, 자립생활 지원 교육
지역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센터, 주거지원센터, 광역·지역자활센터, 의료기관 기본 연계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취약계층 돌봄·지원사업 등 (독거가정 돌봄 및 청소, 도시락배달, 이사지원,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 파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등 단순 업무, 다양한 일 경험 지원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 지원 및 취업 연계 	
인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경험, 충분한 인력(전담 사례관리사, 정신보건상담사 등)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공간 기관 내 일시보호기능 	

3 제언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시설 보호 중심으로 설계된 노숙인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리노숙인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노숙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시스템은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확장하고, 생활권 단위의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
 - 노숙인 복지사업도 이러한 경향과 궤를 같이하여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숙인 사업의 지역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높인다는 것은 노숙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일상생활 유지와 경제활동,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제반 측면에서 참여와 이용의 제약을 줄여간다는 의미임
 - 그러나 거리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 짐작할 수 있음. 거리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 노숙인 사업의 지역화를 도모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다양한 지역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 무엇보다 거리노숙인을 사업 또는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먼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 장치가 필요함
 -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공모사업 수행 기관 중 두 곳의 지역자활센터(용산·창원)가 사업의 불투명한 지속가능성과 참여 인센티브 미약을 이유로 사업 운영을 중도에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주무부처 기관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 지원, 사업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
- 장기적 관점에서, 거리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지역사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복지인력 교육 과정에 노숙인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한편,
 -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축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비영리단체, 주민 자치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노숙인 관련 교육을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함
 - 평소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취약계층 복지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거리노숙인이 향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현재의 인력 구조와 예산, 사업비 구성 등이 적정한 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거리노숙인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통합지원체계로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과업이 부여된 사업임. 이에 인력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숙인 사업의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중간지원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앞서 제안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V-2>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개선방향

구분	내용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의 지속참여·재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상향 프로그램 설계로 점진적 회복 지원 • 전담사례관리사 기본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효과 지속 및 재노숙 방지를 위한 후속 사례관리 강화 • 고용-주거-의료를 통합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거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유연화 등 주거 지원 필수 • 사업 수행기관 상담 기능 강화 및 수퍼비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기능 강화 • 근로능력을 고려한 상향적 일자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한 균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교육과정 및 기본 프로그램 개발 - 전문 강사진 구성·파견 및 순회교육 지원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한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진단, 자문단 구성, 사례관리 연구단 운영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경험 및 자료 축적, 정책 개발 - 사업수행 기관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 - 사업기관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코로나 19등 감염병 대응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비대면 교육, 개인별·소그룹별 프로그램 등 언택트 사업 개발 지원 • 표준가이드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서류 개선 및 보완 - 주체별 역할, 과업 범위 등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 기관 인센티브 현실화 • 사업 예산 증액 및 중간지원조직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별도 편성 • 거리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확대

- 구인회·정근식·신명호·강대중·김소영·김의태·김창엽·선소영·신흠·윤창교·황익주, 2012,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현미·최연희, 2002, “실질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희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 남기철, 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규제와 단주우선 접근의 극단성”, 《비판사회정책》 38: 5-44.
- _____, 2007, 《노숙인과 사회복지 실천》, 한국학술정보.
- _____, 2009, 《노숙인복지론》, 집문당.
- _____, 201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성격”, 《비판사회정책》 39: 7-43.
- 남기철·신원우·민소영·김선미·김준희·이지혜, 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신권철, 2014, “부랑과 노숙의 법적 고찰”, 《법제연구》 47: 501-537.
- 신지숙·백주희, 20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중·노년 남성 노숙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1393-1407.
- _____, 2003,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노숙 경험이 노숙 전후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서울시 노숙인 지원 서비스 발전과정 및 정책 과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11): 963-972.
- 이동희, 2010, “외국어와 법령용어-부랑인·노숙인은 Homeless?”, 《법제》, 법제처.
- 이태진·노대명·남기철·정원오·주영수·김선미·우선희, 2007,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 이태진·서동우·김미숙·남기철·김선미, 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延世論叢》 11(1): 107-130.
- 정원오·남기철·민소영·현시웅, 2011, “부랑인·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정원오·김용득, 2014,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보건복지부.
- 홍세영, 2018, “노숙인복지법 비교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6(1): 339-368.
-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사업안내》.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9, “202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복지부, 2011,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 안내》.
- _____, 2013, 《20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15, 《201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16a,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16b,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
- _____, 2017a, 《2016년도 노숙인등의 실태조사》.
- _____, 2017b,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18,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19,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20a,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_____, 2020b,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_____, 2020c, 《2020 자활사업 안내 I》.
- _____, 2020d,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_____, 2020e,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9,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가이드》.
- Baker, F. & Intagliata, J., 1992, Case management. In R. P. Liberman(Ed.), Handbook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New York: Macmillan, 213-243.
-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부록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설문지

	-		
--	---	--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거리노숙인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의뢰를 받아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거리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합니다. 조사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 9.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송기호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
전화: 010-2989-4715 / 이메일: jggmskh@naver.com
주소: (08359)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조사기관		조사일	2020년 9월 일
담당자		연락처	

* 기관의 담당자가 응답자를 대신하여 작성해주십시오 *

1. [최근 한 달간] 평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 시간별로 구간을 정해 평소 하는 일과 장소를 적어주십시오

(예: 오전 1시~11시 ○○역에서 잠. 오후 3~5시 터미널에 그냥 있음, 오후 1~3시 구직활동)

시간	평일	시간	주말/휴일
오전 1		오전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오후 1		오후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2. [최근 한 달간] 평소 자신의 생활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 "③ 보통이다"는 특정 경향성 없이 50% 정도의 비율로 상황이 달라질 때 체크해주시시오.

구분	질문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반/반)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 일상 생활	① 밥을 잘 챙겨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③ 다치거나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④ 숙면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술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틈틈이 소일거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돈을 벌기 위해 경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B 자기 관리	①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듬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거주지(자는 곳)를 청소하고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내일 할 일이 있으면 과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④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치료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인간 관계	①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D 자립 의지	① 돈을 모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최근 한 달 간 구직활동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한 달 후 계획이 있다.	□ 있다 □ 없다	내용:				
	⑥ 1년 후 계획이 있다.	□ 있다 □ 없다	내용:				

3. 평소 돈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술을 마신다.
- ② 끼니를 때운다.
- ③ 옷,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 ④ 건강관리를 한다(치료, 운동, 입원 등)
- ⑤ 돈을 모은다.
- ⑥ 빚을 갚는다.
- ⑦ 주변의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 쓴다.
- ⑧ 기타()

4. 언제쯤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 ② 1~2년 이내
- ③ 2~4년 이내
- ④ 5년 이상
- ⑤ 사실상 자립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5.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먹는 문제 해결
- ② 안정적인 잠자리 확보
- ③ 주거지 확보
- ④ 생활비 마련
- ④ 신용 회복
- ⑤ 빚 청산
- ⑥ 신체건강 회복
- ⑦ 정신건강 회복
- ⑧ 수급권 확보
- ⑨ 일자리 확보
- ⑩ 자격증/졸업장 취득
- ⑪ 술을 줄이거나 끊기
- ⑫ 불규칙한 생활습관 개선
- ⑬ 기타()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참여자만 응답해주세요.

1.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 ② 당장 돈이 필요해서
- ③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해서
- ④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서
- ⑤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해서
- ⑥ 별다른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 ⑦ 노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 ⑧ 친한 동료가 참여하고 있어서
- ⑨ 기관 담당자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줘서
- ⑩ 기타()

2.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중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일자리 지원, 사례관리, 주거지원, 자격증 교육, 인문강좌, 자산관리, 집단상담, 개인상담, 미술치료, 영화관람, 여행, 단합대회 등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프로그램 중 골라주십시오.

*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 이유:

3.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이후 느끼는 **자신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 * 해당 여부를 모두 체크한 후, 그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① 술이 줄었다.
- ② 건강이 좋아졌다.
- ③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졌다.
- ④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할 수 있다.
- ⑥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⑦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 ⑧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 ⑨ 노숙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 ⑩ 취업을 위한 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 ⑪ 주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 ⑫ 기타(보기에 없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기록해주시시오)

4.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제안 사항**이 있습니까?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향 연구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 소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2, 삼창빌딩 5층

연락처 TEL. 02-3415-6900 FAX. 02-3415-6990

www.kdissw.or.kr
